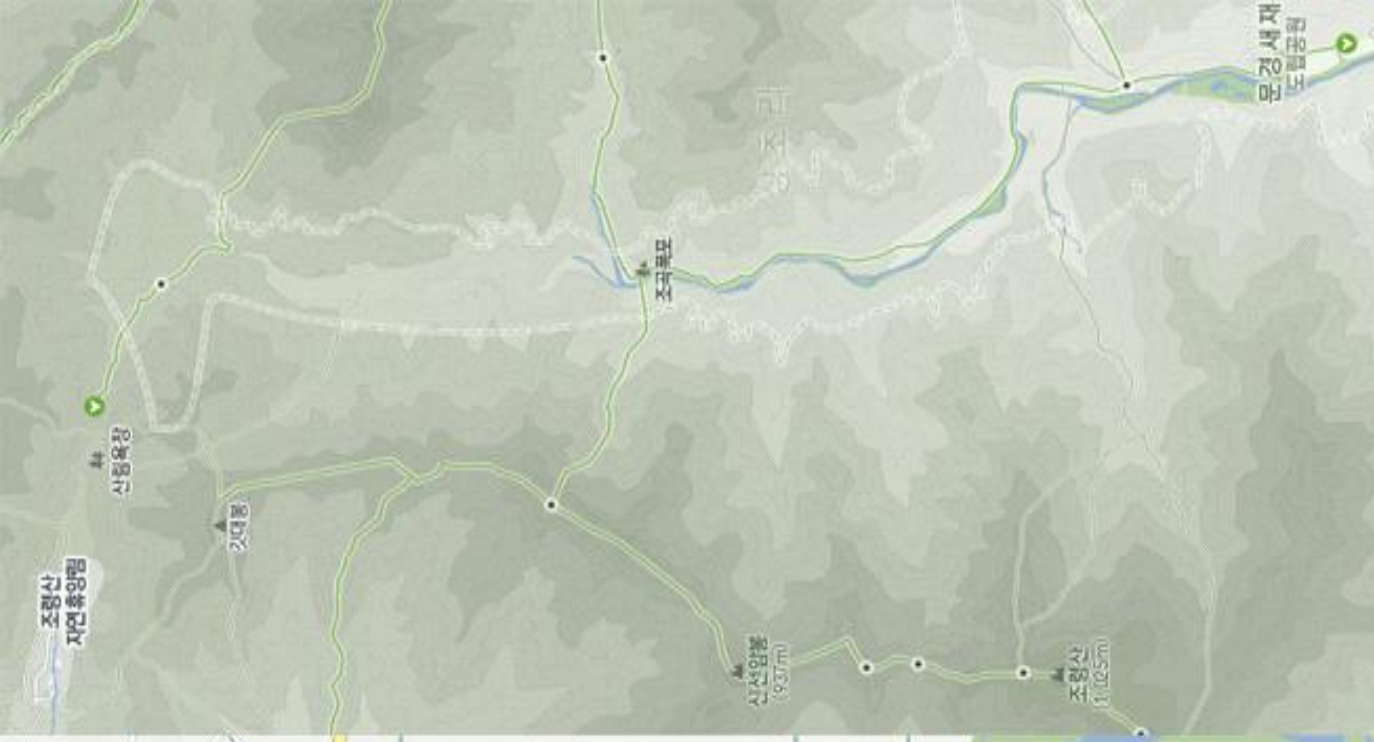
인하재 선비들의 안동 유람기

延世2014
史學가을답사

1일차
부석사
틱계종택
유교문화
박물관
도산서원
각화산
(1176m)
부석면
물야면
단산면
931
춘양면
915
법전면
봉성면
봉화읍
봉화군
36
상운면
명호면
이산면
영주시
28
청량산
도립공원
영주 IC
5
문수면
평은면
녹전면
도산면
왕모산
(648m)
928
안동호
예안면
북후면
학가산
(870m)
933
935
와룡면
서후면
안동호
중앙고속도로
서안동 IC
안동호
안동호
안동호
안동시
924

2일차
봉정사
재비원
석불
의성김씨
학봉종택
임청각
신세동전탑
동부동전탑
독립운동기념관
내앞마을
천등산
(575m)
와룡면
와룡산
(461m)
안동역
안동시청
안동터미널
안동대학교
안동시립
문화장
안동휴그린골프장
S-OIL
924
34
35



조국폭포
산림욕장
조령산
자연휴양림
신선암봉
(937m)
조령산
(1,025m)

하아그린파크조성공사
밑골저수지
914
하회세계탈
박물관
부용대
하회리
병산리
병산서원
탈놀이전수관
안동하회마을
낙동강
3일차

일정

1일차

07:40~08:00	집결 및 인원파악	
12:30~13:30	점심식사	
13:45~14:40	부석사 관람	(15쪽)
15:55~16:45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관람	
17:00~17:25	퇴계종택 관람	
17:30~18:20	도산서원 관람	(29쪽)
19:35~	하아그린파크수련원 도착	

2일차

07:00~08:00	아침식사	
09:20~10:05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람	
10:05~11:05	내앞마을 관람	(40쪽)
11:35~12:05	임청각, 신세동전탑 관람	
12:15~12:35	동부동전탑 관람	(13쪽)
12:40~13:40	점심식사	
14:00~14:35	제비원석불 관람	(12쪽)
15:10~16:05	봉정사 관람	(18쪽)
16:25~17:05	의성김씨 학봉종택 관람	(47쪽)
17:55~18:30	부용대 관람	
19:00~	하아그린파크수련원 도착	

3일차

07:00~08:00	아침식사	
08:40~09:20	병산서원 관람	(34쪽)
09:40~11:00	하회마을 관람	(38쪽)
12:30~13:20	점심식사	
13:20~16:10	문경새재도립공원 산책	
18:50~	연세대학교 도착	

목차

지도 3

일정 7

목차 8

1. 불교문화와 안동 10

(1) 불교의 건축, 가람양식

(2) 더 깊은 신앙, 불상

(3) 안동지역의 석불

(4) 안동지역의 전탑

2. 안동지역의 사찰문화 16

(1) 부석의 전설, 영주 부석사

(2) 최고의 목조건축물, 안동 봉정사

3. 유교문화의 중심 서원과 유림 24

(1) 서원

(2) 유림

4. 조선 주자학의 성립, 퇴계 이황 29

(1) 퇴계 이황

(2) 도산서원의 건학이념과 운영

(3) 영남학파와 퇴계학파

5. 망국의 위기에서 조선을 구한 서애 류성룡 33

(1) 서애 류성룡

(2) 병산서원

6. 유교사회의 독특한 문화 동족촌락 38

(1) 동족촌락이란?

(2) 하회마을과 풍산류씨

(3) 내앞마을과 의성김씨

7. 양반의 주거문화 종택 44

(1) 종택과 제사

(2) 진성이씨와 퇴계종택

(3) 의성김씨와 학봉종택

8. 인물로 살펴보는 국내독립운동 51

(0)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

(1) 류인식

(2) 권오설

(3) 김남수

(4) 이육사

9. 인물로 살펴보는 국외독립운동 58

(1) 김동삼

(2) 김대락

(3) 이상룡

(4) 김재봉

편집후기 66

I. 불교문화와 안동

1조: 남서진, 이소정, 이예원, 홍승조

1. 불교의 건축, 가람양식

(1) 가람

승가람마, 승가람의 준말로 중원(衆園)이라고 번역한다. 인도에서는 수행하는 승려가 무여 수행과 숙박하는 園林을 말하였으나, 중국에서는 금당·강당·탑·식당·종루·경장·승방의 7가지 건축물을 다 갖춘 형식을 의미한다. 우리 역사의 가람은 시대마다 의미하는 바가 달라졌으나 대체적으로 건축물인 전당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거나 절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된다.[1)]

(2) 가람배치

가람배치란 사찰이 위치하는 방식으로 그것의 밑그림이 되는 것은 수미산 우주론이다.[2)] 수미산은 신들과 성인들이 지내는 성스러운 공간이다. 가람배치에서 사찰 앞의 냇물은 수미산 주위에 흐르는 향수해(香水海)이고, 일주문은 수미산 성역의 시작점, 천왕문은 수미산 중턱의 사천왕이 사는 곳이며, 대웅전은 부처가 지내고 있는 수미산의 맨 정상을 의미한다. 즉, 절에 가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를 경험하고 부처를 만나는 행위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찰은 그것이 세워진 환경에 따라 평지가람과 산지가람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교가 번성했던 신라, 고려 시대에는 평지가람이 주류를 이루었고, 산지가람의 경우 선종과 풍수지리설의 영향이 짙었던 통일신라 말기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후 조선에 와서는 숭유억불정책에 따라 도시 내의 사찰이 모두 다른 용도로 바뀌거나 사라져 산지사찰만 남게 되었다.[3)] 산지가람은 기본적인 자연과 산지의 조건을 고려하기 때문에 평지가람에 비해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

1) 김승동, 2011「콘사이스판 불교사전」민족사, 6쪽
2) 자현 스님, 2012「100개의 문답으로 풀어낸 사찰의 상징 세계」불광출판사, 33쪽
3) 자현 스님, 2012 앞의 책, 48~50쪽

2. 더 깊은 신앙, 불상

(1) 불상의 탄생

불상은 부처 열반 500여 년 뒤에서야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인격 신상으로 불상을 만들어낸다는 사영실은 발상조차 못할 일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성인으로 떠받들어야 할 위대한 인물이 범상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불경스럽다 여겨졌는데, 이러한 동양적인 위계의식은 불타의 전기를 소재로 그려낸 불전도(佛傳圖)에서조차 불타를 빈자리나 발자국 등으로 표현하는 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따라서 불타의 인간적 모습은 불멸(佛滅: 불타의 입멸. 즉 불타의 돌아감) 이후 약 600년 동안 어디에서도 표현되지 않았다.[4)]

그런데 불멸 후 600년이 지난 뒤인 서력 기원 전후한 시기에 쿠샨제국의 중심지인 간다라 지방에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이를 이념 기반으로 하여 서북 인도의 간다라와 중인도의 마투라 양대 지역에서 불상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 중 우리나라는 인도의 간다라의 영향을 받은 불상을 제작하게 된다.

(2) 불상의 종류

보통 불교에서 상(像)은 여래상, 보살상, 신장상, 나한상 및 조사상으로 나누어진다. 불상이 불교에서 궁극의 경지인 깨달음을 얻은 이를 상징화한 것이라면, 보살상은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을 위해 부처가 되는 것을 잠시 미룬 이를 상징한다. 이러한 상들은 시각적으로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불상은 남성의 모습을, 보살상은 여성의 모습에 보다 가깝다.

또한 보살상은 보관(寶冠)을 쓰고 영락(瓔珞)이라는 장신구를 몸에 걸쳤으며 하늘거리는 천의(天衣)를 입었다. 한편, 나한상은 노스님이나 신선의 모습과 비슷하며, 신장상은 사천왕상을 통해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 주로 무장한 모습이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조성된 대표적인 부처님에는 영산회상의 교주 석가모니, 서방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아미타, 중생의 병고를 다스리는 약사, 그리고 메시아로 널리 알려진 용화수(龍華樹)를 든 미륵부처님이 있다. 각각의 부처들이 모셔진 전각의 명칭은 모두 다른데 예를 들면, 대웅전 및 대웅보전의 주존상(主尊像)이 석가모니 불이고 부석사 무량수전의 주존상은 아미타불이다. 이 밖에도 수많은 보살상, 신장상 등이 사찰에 모셔져 있다.[5)]

---

4) 최완수. 2011. 『한국 불상의 원류를 찾아서』
5) 자현 스님, 2012 앞의 책, 167쪽

(3) 불상의 수인(手印)

수인이란 부처와 보살이 깨달은 진리와 공덕을 그들의 손가락 모양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을 뜻한다. 수인은 불전도에 나오는 석가의 손 모양에서 유래했으며, 석가불의 경우 선정인, 항마촉지인, 전법륜인, 시무외인, 여원인이라는 5가지의 손 모양을 주로 취한다.

선정인은 배꼽 앞에 손을 두는 수인이며 석가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사색에 잠길 때 취한 수인으로 알려져 있다.

항마촉지인은 결가부좌한 채 오른손은 무릎위에 얹고 손바닥을 위로 한 왼손은 배꼽 앞에 위치하는 수인인데, 이는 모든 악마를 굴복시켜 없애는 모습이다.

시무외인은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고 위안을 주는 수인이며, 여원인은 중생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준다는 수인인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취하는 것을 시무외여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법륜인은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뒤 최초로 설법할 때에 취했던 수인이다.

이 외에도 석가불의 별인인 천지인, 비로자나불의 별인인 지권인, 약사불의 별인인 약기인, 그리고 선정인에서 약간 변형 된 형태인 아미타불이 취하는 아미타정인 등이 있다.[6]

3. 안동지역의 석불

(1) 안기동 석불좌상

안동 안기동에 위치한 안기동 석불좌상은 통일 신라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현재 보물 제58호로 지정된 불상이다.[7] 원래 광배(光背)와 대좌(臺座), 머리 부분이 없어졌던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최근 대좌와 머리를 새로이 만들어 놓았다. 불상 전체의

6) 이 부분은 문화콘텐츠닷컴 http://www.culturecontent.com/ 을 주로 참고하였음.
7)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우리역사문화의 갈래를 찾아서, 안동문화권』, 역사공간, 2003, p.290

형상은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오른쪽 가슴과 손등, 무릎부분이 마모되었다.

불상의 오른손은 무릎 위에 올려져 있으며 항마촉지인을 취하고 있다. 항마촉지인이란 석가여래가 취하는 수인인데, 모든 악마를 굴복시켜 없애버리는 의미를 지니며 선정인에서 오른손을 풀어 오른쪽 무릎 위에 얹고 손가락 끝을 가볍게 땅에 댄 모습이다.[8] 안정된 자세를 취한 신체는 오른쪽 가슴과 손등, 무릎 부분이 마멸되었지만 세부 조각은 섬세하면서도 힘 있게 표현되어 있다.[9]

(2) 이천동 마애석불(제비원석불)

안동의 이천동 태화산 연미사 부근의 산기슭 암벽에는 커다란 마애불이 새겨져 있다.[10] 이 마애불은 위치한 곳이 조선시대에 제비원이라는 역원이 있던 자리여서 안동에서는 흔히 제비원 미륵불이란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11] 마애불은 암벽이나 구릉에 새긴 불상을 말하며 주로 양각, 음각, 선각의 형태로 구분되는데 제비원 석불은 선각으로 조성된 고려시대의 불상[12]이고 보물 제 115호로 지정되어있다.[13]

암벽에 몸체를 선각하고 머리를 따로 조각하여 얹은[14] 모양으로 몸체의 선은 비바람에 씻겨 희미한 반면, 얼굴의 이목구비는 매우 뚜렷하다. 머리의 뒷부분은 거의 파손되었으나 앞부분은 온전하게 남아 있다. 머리에는 상투 모양의 머리묶음이 높이 솟아 있고,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흐르고 있어서 고려시대에 많이 만들어진 거구의 불상에서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미련스러움은 보이지 않는다.

머리와 얼굴 특히 입에는 주홍색이 남아 있어서 원래는 채색되었음이 분명하다.[15] 두 어깨를 다 감싼 통견의 자락이 왼쪽 어깨에서 흘러내린 것과 오른쪽 어깨에서 뻗어 내린 옷 주름과 교차하고 있다. 불상의 한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위치하고 있으며, 발쪽 대좌부분에 음각으로 새겨진 큼직한 연꽃무늬가 있다. 이러한 양식의 거대 마애불은 주로 고려시대의 것이다.[16]

---

8) 위의 책, p.290
9) 위의 책, p.290-291 참조
10)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안동역사문화기행』, 푸른역사, 2002, p.128
11) 위의 책, p.128
12)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앞의 책, p.291
13) 위의 책, p.291
14) 위의 책, p.291
15)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16)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앞의 책, p.130

연미사의 창건과 함께 조성되었다고 전해지지만 이러한 조각 수법을 통해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7] 경도가 적당히 강한 화강암을 불상의 재료로 썼기 때문에 크고 작은 망치나 정으로 쪼아 조각함으로써 돌의 질감을 그대로 살리며[18] 섬세한 형상을 표현해 낼 수 있었다.

10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비원 석불은 안동의 불교문화가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간 형태를 보여주며 특히 고려 초기의 미륵신앙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미륵은 범어 'Maitreya'의 음을 딴 말로 '아직 오지 않은 부처', 즉 미래불을 뜻하나, 실제로는 머지않아 장래에 올 부처를 의미한다. 고려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 이러한 미륵신앙을 적절히 이용했으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미륵불을 세우고자 했다. 따라서 안동의 이천동 석불은 단순히 신앙 활동의 모습 뿐 아니라 고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세력이 안동에도 존재했음을 보여준다.[19]

4. 안동지역의 전탑

(1) 법흥사지 7층 전탑(신세동전탑)

1487년에 개축되었으며 원형이 보존된 한국 최고(最古)의 전탑으로 1934년에 국보 제 16호로 지정되었다. 전탑이 위치했던 법흥사는 현재 자취를 찾을 수 없다. 현재 감실의 내부는 봉해졌고 실내에는 불상이 안치되었던 듯하나 지금은 그 형적을 찾을 수 없다. 塔身部는 회흑색의 無紋塼으로 축조하였다. 전의 크기는 길이가 약 28cm, 폭 14cm, 두께 6cm로 어긋나게 쌓아 올라갔다. 上輪部는 지금 露盤만이 남아 있는데, 원래는 금동으로 장식된 상륜이 있었다고 한다. 지붕에 기와를 얹었던 자취가 있는 것으로 보아 목탑을 모방하여 전탑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2) 법림사지 5층 전탑(동부동전탑)

보물 제 56호이다. 이 전탑 부근에 法林寺라는 절이 있었다고 동국여지승람과 영가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법림사지(法林寺址) 전탑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절터의 규모와 함께 전탑의 조성배경에 대해선 현재까지 거론 된 정확한 자료가 없다. 현

17)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앞의 책, p.291
18) 김나리 외, 『한국불교미술사』, 미진사, 2001, p.140
19)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앞의 책, p.128

재는 5층 전탑과 당간지주만이 남아 있다. 화강암으로 만든 3단의 방형 기단 위에 어긋나게 5층을 쌓아 올렸는데 초층은 높고 2층부터는 체감되었다. 동부동전탑은 층마다 부처를 모셨던 작은 감실(龕室)이 있다는 게 특징이다.

탑신부의 각 층마다 작은 감실이 마련되어 있고 2층 탑신 남쪽 면에는 2구의 인왕상을 조각한 화강암 판석이 끼워져 있다. 또한 상륜부는 없어지고 연꽃이 조각된 옥개석이 얹혀져 있다. 『永嘉誌』에 의하면 원래 정상에는 금동상륜이 있었으나 임진왜란때 명나라 장수 양등산에 의해 헐렸으며, 1958년 7층이었던 탑이 5층으로 개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20] 이 전탑과 나란히 서 있는 당간 지주는 화강석을 2개 마주 세웠고, 화강석 중심부에 구멍을 뚫고 대석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홈을 만들었다.[21]

<참고문헌>

- 김선희, 1986,『안동 전탑의 비교 : 신세동 7층전탑과 동부동 5층전탑 중심』
- 이능기, 1994,「塼塔의 造形分析」
- 김나리 외, 2001,『한국불교미술사』, 미진사
-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2002,『안동역사문화기행』, 푸른역사
-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2003,『우리역사문화의 갈래를 찾아서, 안동문화권』, 역사공간
- 김상영 외 6인, 2005,『전통사찰총서 17권-경북의 전통사찰Ⅳ, 서울:사찰문화연구원』(문화원형백과 승려의 생활),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문화유산답사회, 2010,『답사여행의 길잡이 10 - 경북북부』, 돌베개
- 김승동, 2011,「콘사이스판 불교사전」민족사
- 자현 스님, 2012,「100개의 문답으로 풀어낸 사찰의 상징 세계」불광출판사
- 최완수, 2011,『한국 불상의 원류를 찾아서』, 대원사

21) 이능기, 1994 위의 논문, 58쪽

II. 안동지역의 사찰문화

4조: 김경록, 형채우, 이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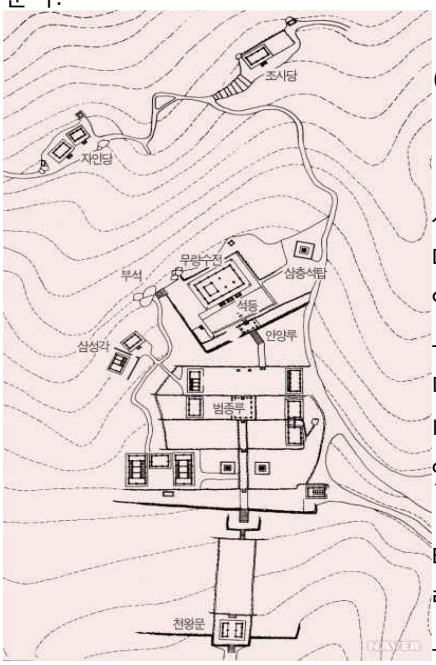
1. 부석의 전설, 안동 부석사

(1) 부석사 소개

부석사는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봉황산 중턱에 있는 사찰로서 대한불교 조계종 제 16교구 본사인 고운사의 말사이다. 신라 문무왕 16년 2월에 의상이 왕명으로 창건한 뒤 화엄종의 중심사찰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부석사가 위치한 곳은 봉황산 중턱이다. 일명 옥산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원의 침입에 의하여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난을 갔을 당시 왕이 부석사가 있는 봉황산을 올랐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동쪽으로는 문수산, 남쪽으로는 학가산이 있고 서쪽으로는 소백산맥이 휘어 돌아 거대한 울타리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위치하고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봉황산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형상이다. 풍수지리사상으로도 뛰어난 길지에 속하며 안양루 쪽에서 멀리 도솔봉 쪽을 바라보면 펼쳐 있는 산맥의 연봉들이 장관을 이룬다.



(2) 부석사의 가람배치

부석사의 전체적인 가람 배치를 보면 아래에서부터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지세가 넓어져 마치 큰 새가 날개를 활짝 펼친 듯한 형상이다. 양 날개깃이 되는 서쪽에는 서부도밭이 있고, 동쪽에는 원융국사비가 있는 비각이 있다. 그보다 좀 높은 곳에 동부도밭이 있는데 부도들이 나란히 서서 발치 아래를 시원스레 굽어보고 있다.

부석사의 공간을 크게 나누어보면 아래로부터 일주문 공간, 천왕문 공간, 안양루 공간, 무량수전 공간이 차례로 이어지고, 무량수전 뒤쪽으로 조사당과 자인당 공간이 있다. 이러한 절

의 배치는 산자락 경사를 최대한 이용하여 아래에서부터 위로 상승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석사 세부 모습은 19세기 중엽의 기록인『순흥읍지』에 전하는 바에 의하여 지금의 것과 좀 다르다고 한다.[22]

(3) 부석사의 문화재

경북 영주에 위치한 부석사에 있는 문화재에는 무량수전, 무량수전 앞 석등, 삼층석탑, 안양루, 석조석가여래좌상, 소조여래좌상, 외불회 괘불탱, 조사당, 원융국사비 등이 있다. 그 중 무량수전, 삼층석탑, 조사당, 안양루, 범종각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부석사 무량수전

무량수전은 부석사 경내에 있는 고려시대 목조 불전으로서 국보 제18호에 지정되어 있다. 부석사의 주불전으로 무량수불인 아미타여래를 본존으로 봉안하였다. 아미타여래는 끝없는 지혜와 무한한 생명을 지녔으므로 '무량수불'로도 불리는데 '무량수'라는 말은 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건물은 1916년에 해체, 수리 때 발견된 묵서명(墨書銘)에 1376년에 재건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조사당이 1377년에 재건된 것과 비교하여 학계에서는 일찍부터 건물양식으로 보아 조사당보다 100년 내지 150년은 더 앞서는 건물로 추정하여 왔으며, 앞서 말한 묵서명은 그 뒤에 보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건물에는 배흘림이 많은 기둥머리 외일출목(外一出目)으로 된 공포(栱包)를 올렸다. 이 건물의 양식상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 주심포 집의 기본 양식을 가장 잘 남기고 있으며, 또 가구방식이나 세부수법이 후세의 건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장식적인 요소가 적다는 점이다. 즉, 전체가구재는 모두 직선재를 사용하였으며, 공포의 첨차 끝과 보 또는 퇴보 등의 끝에는 간단한 곡선으로 된 장식이 있을 뿐이고, 또 주두(主頭) 위의 공포나 기타 부분에 있는 포작에 주두나 소루(小累) 굽의 단면이 내반(內反) 된 곡(曲)을 가지고 굽 밑에 굽받침이 남아있다.

2) 부석사 삼층석탑

부석사 무량수전 동쪽에 세워져 있는 석탑으로, 2단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세운 모습이다. 기단에는 각 면의 모서리와 가운데에 기둥 모양의 조각을 두었는데, 아래층 기단은 가운데에 2개씩의 조각을 두고, 위층 기단에는 하나씩을 두었

22) 한국문화유산답사회, 2010, 『답사여행의 길잡이 10 - 경북북부』, 돌베개

다. 탑신의 몸돌과 지붕돌은 각각 하나의 돌로 되어있는데, 몸돌은 모서리마다 기둥 모양을 조각하였으며, 지붕돌은 밑면의 받침이 5단으로 통일신라의 전형양식을 따르고 있다.

문무왕이 부석사를 창건할 당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아래층 기단의 너비가 매우 넓고, 1층 몸돌 또한 높이에 비해 너비가 넓어서 장중해 보인다. 1960년 해체하여 복원할 때 철제탑, 불상의 파편, 구슬 등이 발견되었고 이 때 일부 파손된 부분은 새로운 부재로 보충하였다. 탑은 원래 법당 앞에 건립되는 것이 통례이나 이 석탑은 법당의 동쪽에 세워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조사당

조사당은 무량수전에서 북쪽으로 약간 떨어진 산 중턱에 있다. 측면으로 약간 비스듬히 진입하여 소박하고 간결한 느낌을 준다. 부석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의 진영(眞影)을 봉안하고 있는 곳으로 고려 우왕 3년에 건립 되었다. 이 건물은 주심포양식에 맞배집으로 무량수전에 비해 기둥의 배흘림이 약해졌고, 주두(柱頭)와 소루(小累)의 굽은 직선이며 굽받침이 없고, 공포와 가구(架構)의 수법은 간략하다. 무량수전보다 훨씬 후대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물 내부, 입구, 좌우에 제석천, 범천, 사천왕상의 벽화가 있었는데 이들은 고려시대의 회화사상(繪畵史上) 희귀한 것이며, 고분 벽화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채색그림 중 하나로서 지금은 무량수전 내에 보존하고 있다. 조사당 앞 동쪽 처마 아래서 자라고 있는 나무는 의상국사가 꽂은 지팡이였다는 전설이 있다.

4) 안양루

안양루는 무량수전 앞마당 끝에 놓인 누각이다. 이 건물에는 위쪽과 아래쪽에 달린 편액이 서로 다르다. 난간 아랫부분에 걸린 편액은 안양문이라 되어 있고 위층 마당 쪽에는 안양루라고 씌어 있다. 한 건물에 누각과 문이라는 2중의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안양은 극락이므로 안양문은 극락세계에 이르는 입구를 상징한다. 따라서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지나면 바로 극락인 무량수전이 위치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조선 후기에 지은 건물인데도 통로 좌우의 시각적 초점이 되는 하층 기둥 두 개에 배흘림을 둔 것이 특이하다.

5) 범종각

부석사에는 2개의 누각이 있는데 안양루와 범종각이다. 범종각은 취현암과 응향각에 오르는 축대 아래 위치한 누형식의 건물로서 건물 밑을 통하여 축대에 올라 좌우에 설치한 나무다리로 누각 위에 출입하게 되는데 경내를 한눈에 바라다 볼 수 있고 경관이 매우 아름답고 장쾌하다. 문의 성격을 겸한 안양루가 석축위에 작

고 날아갈 듯 하게 지은 누각이라면 대석축단과 안양루 석축으로 구분되는 공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범종각은 지반에 견고하게 버티고 선 안정감 있는 건물이다.

2. 최고의 목조건축물, 안동 봉정사

(1) 봉정사 소개

봉정사는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천등산에 위치한 사찰이다. 이 절은 우리나라 사찰 중에서도 손꼽을 만큼 오랜 역사와 아름다운 가람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 국보 제15호 극락전과 제311호 대웅전을 비롯해, '영산회후불벽화', '목조관세음보살좌상', '화엄강당', 고금당 등 수많은 문화재들이 위치하고 있다. 봉정사는 통일신라 초기 화엄종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어 종교적·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2) 봉정사의 역사

봉정사는 672년(문무왕 12)에 창건됐다. 이에 대해 기록마다 차이가 있는데, 「양법당중수기」에선 의상 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하지만 극락전의 「상량문」에서는 능인(能仁) 대덕이 창건주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해당 기록이 신라 시대로부터 천년 후인 조선 중기의 기록이어서 세월의 차이가 존재한다.

> 능인대사(의상대사)가 젊었을 때 대망산 바위굴에서 도를 닦고 있던 중 스님의 도력에 감복한 천상의 선녀가 하늘에서 등불을 내려 굴 안을 환하게 밝혀 주었으므로 '천등산'이라 이름하고 그 굴을 '천등굴'이라 하였다. 그 뒤 더욱 수행을 하던 능인스님이 도력으로 종이 봉황을 접어서 날리니 지금의 절 자리에 머물러 산문을 개산하고, 봉황이 머물렀다하여 봉황새 봉(鳳)자에 머무를 정(停)자를 따서 봉정사라 명명하였다.

건축과 관련해, 1363년 전각 지붕 중수, 1616년 고금당 수리, 1625년과 1809년에는 극락전과 대웅전을 중수한 기록이 있다. 그 외에도 최근 들어 1969년 고금당을 해체 및 복원했고, 1972년부터 1975년까지 극락전을 해체 및 중수해 오늘에 이르렀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방문해 한때 세계인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3) 봉정사의 문화재

1) 극락전

극락전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목조건축 중 최고의 건물로 유명하며, 1962년에 국보 제15호로 지정됐다. 극락전 앞뜰에는 고려시대 석탑양식으로 지어진 삼층석탑이 있으며 극락전의 지붕은 八자 모양의 맞배지붕이며 기둥 위에만 공포를 두고 있다. 건물의 정면 가운데 칸에는 문을 달고, 양 옆칸에는 창문을 낸 감실형 법당이다. 건물 안쪽 가운데에는 불상을 모셔놓고 그 위로 화려한 닫집을 만들었다. 부재 하나하나도 과학적이고 미적인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어 국보로 지정된 여타의 목조 건축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할 만하다.

2) 대웅전

대웅전은 봉정사의 중심 전각으로 앞면과 옆면 각 3칸씩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양식적으로는 전형적인 다포 양식 건물로서, 특히 공포와 내부의 가구 등에서 보이는 힘 있고 가식 없는 조선 초기 다포양식의 전형을 보여준다. 벽면에는 고려벽화의 특징을 갖춘 영산회후불벽화가 발견됐는데, '영산회'는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일컫는다.

이 벽화는 고려벽화의 특징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 배불숭유를 내세운 조선왕조에서 막대한 재정을 불화에 동원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대웅전의 건축연대가 좀 더 이른 시기였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지만 정확한 사료가 없어 단정할 수 없다. 법당 내부에는 가운데에 석가모니불, 왼쪽에 문수보살, 그리고 오른쪽에 보현보살이 안치돼 있다.

3) 고금당

고금당은 보물 제449호로 지정됐으며, 극락전 앞뜰에 동향하고 있는 소규모의 건물이다. 앞면 3칸, 옆면 2칸의 맞배지붕이지만 북쪽 측면은 후대에 팔작지붕으로 개조됐다. 본래 불상을 봉안한 전각이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지금은 요사로 사용하고 있다. 공포는 기둥 위에만 배치된 주심포 계통이다. 공포를 구성하는 첨차의 양식은 이미 조선 초의 특색을 잃고 변형됐다. 비록 건물은 작지만 다양한 건축기법을 조화롭게 사용한 건축물로 주목받는다.

4) 기타

삼층석탑은 극락전 앞에 있는 고려 중기의 삼층석탑으로, 2층의 기단을 쌓아 탑의 토재를 마련하고 그 위로 3층의 탑신과 옥개석을 얹은 일반적인 모습이다.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7은 보물 제1138호로, 1366년 권도남 등이 돌아가신 아버지와 선조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봉정사에 봉안한 것이다. 지금은 절에 없다.

(4) 봉정사와 불교사상

1)봉정사의 가람배치

봉정사의 가람배치는 부석사와 대조적이다. 지형상 부석사가 넓고 깊은 지형이라면 봉정사는 작고 얕지만 옆으로 긴 지형에 위치한다. 이러한 지형 탓에 봉정사의 대웅전과 극락전의 영역은 나란히 병렬 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봉정사의 가람배치는 'ㅁ자형태' 로 이루어져 있는데 화엄강당을 축으로 좌측에 극락전, 삼층석탑, 고금당이 한 공간을 이루고, 우측에 대웅전, 무량해회가 다른 또 하나의 공간을 이룬다. 전형적인 山地中庭形을 이루는 대웅전 일곽은 남북으로 대웅전과 만세루, 동서로는 선방(禪房)인 화엄강당과 승방(僧房)인 무량해회가 넓게 늘어서 있는 가운데, 앞마당에는 석탑이나 석등 같은 장식물이 없고 반듯한 축대에 반듯한 돌계단이라는 정면성이 강조되어 있으며, 수평면에서도 평면감이 강하게 느껴진다.

이에 반하여 극락전 일곽은 중정에 삼층석탑이 자리 잡고 극락전 돌계단 양 옆으로는 화단이 있어서 정겨운 공간이 연출되고 그 앞으로는 거칠 것 없이 시원한 전망이 열려 있어서 대웅전 앞마당 같은 엄숙과 위압이 없다. 이 두 대비적 공간의 병존이 사람들로 하여금 봉정사의 가람 배치에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하며 우리나라 산사의 대표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봉정사에 도착해서 일주문을 지나 계단에 올라서면 2층 누각인 덕휘루를 만나게 되며 덕휘루 좌우에 높은 석축을 쌓고 담장을 둘러 佛과 俗의 세계를 구분 지었다. 이처럼 덕휘루의 아래층은 경내로 들어서는 통로의 기능을 하고, 윗층은 범종과 목어를 두어 범종각의 역할도 한다.

한국 불교의 특징이 선종에 있으므로 사찰은 대부분 산중에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러한 지리적 특성상 누각은 경사면을 활용하여 밖에서 보면 누각이지만, 안에서 보면 단층의 건물이 된다. 누각 아래에 계단을 두고 이곳을 통해 대웅전 등의 중심 전각에 들어서는 데 이 때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고 이 자세는 곧 참배와 예경(禮敬)의 마음가짐으로 연결된다.

2) 봉정사와 불교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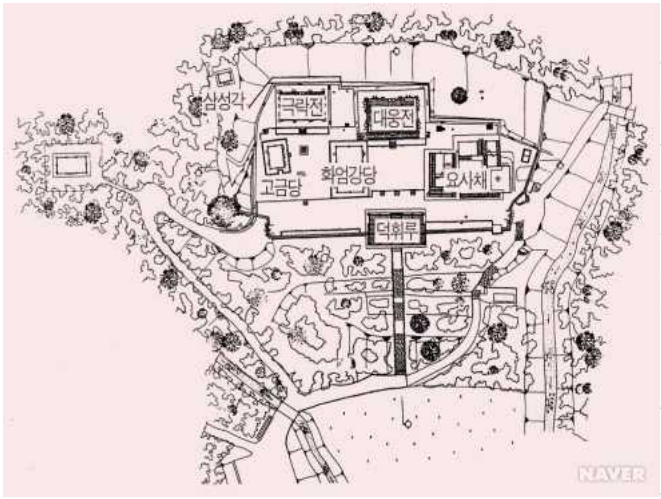
봉정사는 신라의 삼국 통일 직후 산악 구릉에 세워지기 시작한 사찰이다. 이 새로운 사찰은 확실히 거탑 중심의 도회지 사찰과는 형태면이나 기능면에서 달랐다. 이에 따라 당연히 사찰을 조성하는 원리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23] 가장 큰 변화는

23) 봉정사 극락전 앞에 있는 자그마한 탑은 고려시대에 신라의 전형적인 탑을 본받아 만든 것일 뿐 초기에 세워진 탑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절간의 중심이 탑에서 법당으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찰이 신도들의 종교적 신앙행위 보다는 승려들의 수행과 교육에 더 중심을 두고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봉정사는 다중의 신도가 집단적 종교 의례를 행하는 것이 사찰의 본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시대 변화에 따라 이에 맞춰 설립된 것이다.

법당이 사찰의 중심이 됨에 따라 법당에 모셔질 여러 부처들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법당이 수행과 교육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를 다시 검토할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신앙의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열렬히 숭앙받았던 아미타불과, 수행과 교육의 표본으로 존경받아야 할 석가모니불이 서로 어떤 위상을 가지며 공존하는지 진지하게 검토되었다. 또 의상이 처음으로 소개하는 화엄종에서 주연의 위치를 차지하는 비로자나불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도 재고되었다.



이처럼 통일 후 새로운 정세 아래에서 지방의 깊숙한 산 속에 사찰의 새로운 역할을 실험하고자 창건한 봉정사는 부처를 새로운 시각에서 통일적으로 바라보는 '삼신관'을 염두에 두며 조성되었다.

따라서 통일 신라 초기에 조성된 봉정사는 신라의 통일불교사상을 다듬어 가는 초기 단계의 사상이 사찰의 형태로 표현한 절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에 조성되는 우리나라 사찰은 봉정사에서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삼신사상에 의거한 사찰 조형'을 삼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봉정사는 통일 신라 이후 우리나라 사찰 조형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여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봉정사는 종파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미타계 사찰로 '무탑-2불전-2영역-병열축형'의 가람배치를 가지고 있다. 미타계 사찰에 탑이 없는 까닭은 구원의 부처인 아미타불이 열반에 들지 않아 사리탑이 있을 수 없다는 교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참고문헌>

- 김선희, 1986,『안동 전탑의 비교 : 신세동 7층전탑과 동부동 5층전탑 중심』
- 이능기, 1994,「塼塔의 造形分析」
- 김나리 외, 2001,『한국불교미술사』, 미진사
-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2002,『안동역사문화기행』, 푸른역사
-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2003,『우리역사문화의 갈래를 찾아서, 안동문화권』, 역사공간
- 김상영 외 6인, 2005,『전통사찰총서 17권-경북의 전통사찰Ⅳ, 서울:사찰문화연구원』(문화원형백과 승려의 생활),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문화유산답사회, 2010,『답사여행의 길잡이 10 - 경북북부』, 돌베개
- 김승동, 2011,「콘사이스판 불교사전」민족사
- 자현 스님, 2012,「100개의 문답으로 풀어낸 사찰의 상징 세계」불광출판사
- 최완수, 2011,『한국 불상의 원류를 찾아서』, 대원사

III. 유교문화의 중심 서원과 유림

2조: 박수빈, 이용수, 이현희

1. 서원의 소개

(1) 서원의 명칭

서원이란 명칭은 당나라 때 궁중에서 서적을 편찬하고 보관하던 집현전 서원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나 선현을 모시고 어울려 공부하던 곳인 서원은 송나라 때 본격적으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사대부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이들은 지방 곳곳에 사사로이 글방을 세워 후진을 양성하였는데, 그 역량이 커지자 나라에서는 서원이란 이름을 내려 장려하였다.

(2) 서원의 역할

1) 공부하는 곳

서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선현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유형원의 "지금의 서원은 예전에는 없던 것이다. 각 고을의 향교가 교육이 잘못되어 과거에만 집착하고 명예와 이익만을 다투게 되자, 뜻있는 선비들이 고요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 정사를 세워 배움을 익히고 후진을 교육한 데서 서원이 생겨났다"라는 언급에서도 나타나듯이 서원은 본래 제사 기능보다 교육 기능을 우선시했다.

향촌에서 공부하던 선비들이 정계에 진출하였으나 훈구 세력과의 충돌, 즉 사화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사림은 몸을 피하여 학문에 힘쓰며, 뜻이 맞는 동료들과 강학회를 갖고 후진을 양성하는 것으로 사화에 대응하였다. 서경덕 · 이언적 · 이황 · 조식 · 김인후 · 기대승 · 성혼 · 이이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원이 설립되고 체계적인 교육 시설로 자리 잡았다.

2) 선현을 모시는 곳

조선 후기의 서원은 사묘의 기능이 보다 강조되었다. 서원이 문중에 의해 건립되고, 조상 가운데 뛰어난 재주와 충절로 이름 높은 인물들을 배향하는 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 서원은 祠宇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었다. 충효를 중히 여기는 유교사회에서는 조상에 대한 숭배와 그 은덕에 보답하려는 報本사상이 특히 강조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위인이나 선현을 받들어 모시고자 하는

崇賢 사상과 함께 祠廟 제도를 낳았다.

보통 사묘라고 하면 각 가정에서 조상을 제사하는 가묘를 비롯하여 생사 · 사우 · 영당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생사와 사우가 대체로 서원으로 발전하였고 서로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중종 때 경상도 상주에 손중돈 생사가 경현사로 바뀌고 이후 속수사원으로 발전한 것이 그 예이다. 서원에서는 봄과 가을에 배향된 인물에게 제사를 지냈다.

3) 향촌 사회의 도서관

서원은 배움의 장이었으므로 향촌 사회의 도서관 역할을 하였음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서원에 문고를 두어 여러 가지 서적을 수집, 보관하고 나아가 연구 성과와 선현의 사상을 보급하기 위하여 서적을 출판하였다. 예컨대 백운동 서원을 건립한 주세붕은 서원을 유지할 전답을 마련하여 원생들의 공부에 필요한 서적을 구입하였다.

백운동 서원이 이후 이황의 건의에 따라 사액 서원으로 승격하면서 나라에서 4서 5경과 성리대전 등 많은 장서를 하사하였고, 서원 또한 자체적으로 서적을 수집하여 비치하였다. 서원이 많은 도서를 소장함으로써 원생들뿐만 아니라 향촌 사람들 또한 풍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3) 서원의 유래

1) 관학의 부진

조선왕조의 위정자들이 유교를 지도 이념으로 내세운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유교는 신분적 명분론에 의해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지아비와 지어미, 양반과 상민, 주인과 노비 사이에 지배 질서를 부여하기 때문이었다.

관학 교육이 정비된 것은 세종 때였지만 한편으로는 이때부터 관학 교육 체계에 이상한 조짐이 보였다. 관학이 출세 도구로 변질되기 시작하였고 향교의 교관은 질이 크게 저하되었으며, 세조의 집정으로 양식 있는 선비들이 관학교육에의 참여를 기피하게 되었다. 결국 성균관 · 향교 등 관학은 생도가 부족하게 되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자들도 대개 학문에 뜻이 없고 벼슬에나 관심이 있는 무능하고 부패한 무리들이었다.

관학의 분진은 16세기에 이르러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 연산군은 성균관을 연회 장소로 사용하였고 학자들의 독서를 금하기까지 하였다. 관학은 극도로 퇴락해 갔고 공부할 곳을 찾아도 마땅한 곳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원이 생겨났으므로 그 뒤 서원은 쉽게 교육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2) 사림(유림)의 성장

서원은 붕당의 후방 기지 역할도 겸했다. 그러나 이는 사림의 정치적 성장을 전제한 논거이다. 사림이라는 재야 지식인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성종 때였다. 그들은 도덕과 의리를 숭상하고 학술과 언론을 바탕으로 하는 왕도정치를 希求하였다. 그러나 부국 강병을 명분으로 내세운 훈구 세력의 대립은 4번에 걸친 사화를 유발하였다.

심한 타격을 입은 사림들은 세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향촌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자 했다. 이에 사창제의 실시를 주장하고 유향소를 다시 세웠으며, 전국에서 향약을 시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위험한 존재로 작용할 것임을 알아챈 훈구 세력의 집요한 방해 탓에 쉽게 성사되지 않았다.

사림들은 세력 결집을 위한 새로운 장으로서 서원을 구상하였다. 서원은 명목적으로 교육 시설이었으므로 반대 세력으로부터의 견제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림들은 서원을 통해서 학연을 돈독히 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키워나갔다.

3) 주자 숭배열의 고조

16세기에는 사림의 대두와 더불어 주자에 대한 숭배열이 고조되었다. 당시 사림의 주자 숭배는 훈구 세력에 도전하기 위한 이념적 무장으로서도 불가피했다. 조광조를 비롯한 당시 사림들은 주자의 저술인 小學을 심신 단련의 기초로써 필수 과정으로 삼았고, 항시 품에 지니고 다녔을 만큼 소학의 정신의 실천에 힘썼다. 주자에 대한 숭배는 그의 학문에서 더 나아가 주자 자체를 숭앙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사림에서는 주자의 학문뿐만 아니라 주자의 언행까지 배우는 것이 참다운 배움의 길이라고 여겼다.

주자에 대한 숭배열은 교육 활동에도 곧바로 구현되었으니, 주자의 백록동 학규가 그대로 답습되었다. 당시 선비들 사이에서는 주자의 백록동 서원을 흠모하는 자가 많았고, 마침내 주세붕이 백록동 서원을 본받아 백운동 서원을 세웠다. 서원 성립의 직접적 계기는 주자에 있었던 것이다. 서원에서의 공부나 가르침도 주자의 학문 체계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으니 서원을 중심으로 꽃피운 조선의 성리학은 곧 주자학이었다. 백운동 서원의 설립을 시발로 하여 전국 곳곳에 서원이 생겨났다. 특히 1690년대에 서원이 많이 건립되었다.

2. 유림

(1) 유림의 정의

유림의 '林'은 숲처럼 많은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림은 孔子를 숭상하고 유교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유림은 "儒學을 공부하며 유교적 신념을 고수하는 사람" 혹은 "성균관과 향교를 드나들며 학문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 정도로 좁혀 봐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유림은 크게 성균관 · 향교 · 유도회를 주축으로 운영된다. 즉, 일반적으로 성균관과 전국의 향교, 유도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유림'이라 볼 수 있다.

(2) 안동 유림의 특징

1) 혁신 유림

조선 후기 안동 지역에서 서양의 문화와 사상을 받아들인 유림이다. 전통적인 華夷觀과 義理論에 입각한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1904년부터 신문화와 신사상을 수용하여 계몽 운동으로 전환하였다. 대개는 의병 운동과 계몽 운동이 별도로 추진되었는데, 안동의 경우 의병 운동을 전개하던 척사유림이 혁신유림으로 전환하여 계몽 운동을 펼쳤다는 점이 특징이다. 동산 류인식 · 석주 이상룡 · 백하 김대락 등이 대표적인 혁신유림이다.

위정척사에 대한 성찰을 통해 계몽 운동을 지향한 안동의 혁신유림은 근대식 중등학교인 협동학교와 계몽 운동 단체인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설립하여 애국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1910년 국권 피탈 뒤에는 신민회가 주도한 만주 독립군 기지 건설에 앞장섰고, 이후 경학사→부민단→한족회→서로군정서→대한통의부→정의부→혁신의회→한국독립당으로 이어지는 만주 지역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2) 안동의진

조선 말 안동에서 일제의 침략에 저항했던 의병으로, 국권 침탈에 항거하여 국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을미사변과 단발령으로 인해 1895년 말부터 전국 도처에서 의병이 일어났는데, 안동에서도 의병이 봉기했으며 안동의진은 1895년 12월 초에 조직되었다. 단발령 소식이 전해지자 안동 지역에서는 의병 봉기를 위한 통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禮安通文」을 시작으로 「삼계통문」·「청경통문」·「호계통문」 등이 발의되었으며, 각 통문이 전해지면서 안동의 유림들은 의병을 조직

하기 위해 움직였다.

안동의진은 봉정사에서 창의하여, 안동부를 장악하고 호좌 · 풍기 · 영주 · 봉화 · 예천 등 주변 지역의 의진과 연합하였다. 이러한 연합 의진은 안동 지역 일대를 장악하였으나 일본군과의 접전 끝에 태봉 전투에서 퇴각하였고, 인적 ·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재조직에 곤란을 겪었다. 이후 고종의 해산 종용과 관군의 안동부 진군으로, 1895년 12월에 거의하여 1896년 9월까지 약 9개월에 걸친 을미 · 병신년의 안동의진은 항전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안동의진은 일본에게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거의하였으나, 의리론에 치중한 나머지 조직적인 대응이 결여되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참고문헌>

- 이준, 1999,『문화기행 / 서원을 찾아서 - 조선조의 통치사상을 완성시킨 퇴계 이황 선생을 모신 도산서원』Vol.31, 재정포럼
- 이준, 1999,『문화기행 / 서원을 찾아서 - 임진왜란이라는 절대위기를 이겨낸 위기관리의 일인자 서애 유성룡 선생을 배향한 병산서원』Vol.32, 재정포럼
-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2003,『우리 역사문화의 갈래를 찾아서-안동문화권』, 역사공간
- 조동걸, 2003,『한국근현대사의 탐구』, 경인문화사
- 권연웅, 2005,「한국성리학의 지방학적 성격」, 국학연구 제7집, 국학연구소
- 이호일, 2006,『조선의 서원』, 가람기획
- 조성산, 2006,「18세기 영、호남 유학의 학맥과 학풍」, 국학연구 제9집, 국학연구소
- 강윤정, 2007,「정재학파의 현실인식과 구국운동」,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국립중앙박물관, 2007『하늘이 내린 재상, 류성룡』, 국립중앙박물관
- 김학수, 2007,『영남지역 사원의 정치사회적 성격 』, 국학연구 제11집, 국학연구소
- 강윤정, 2008,「백하 김대락의 민족운동과 그 성격」, 추모학술강연회자료집, 청년유도회
- 장윤수, 2008,「조선 중기 고령유학의 특징-회통성, 개방성, 실천성을 중심으로 하여」, 동양사회사상 제18집, 동양사회사상학회
- 김종석, 2012,「도산서원陶山書院의 이념과 그 전개」, 안동학연구 11집, 한국국학진흥원
- 유홍준, 2012『나의 문화유산답사기3 -말하지 않는 것과의 대화』, 창비
-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 [네이버 지식백과] 사학 [四學] (교육학용어사전, 1995.6.29., 하우동설)
- 병산서원, 2006, http://http://www.byeongsan.net/

Ⅳ. 조선 주자학의 성립, 퇴계 이황

2조: 고영욱, 이미경, 이은비

1. 퇴계 이황

퇴계 이황은 1501년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온혜리에서 태어났다. 생후 7개월 만에 부친을 여읜 선생은 유년 시절부터 생모인 밀양 박씨의 가르침으로 총명한 자질을 키워갔다. 또한 실질적인 아버지와 스승의 역할을 맡아준 작은 아버지 이우 선생으로부터 한학을 배운 선생은 12세에 <논어>를 깨치고, 14세경부터는 혼자 독서하기를 즐겼다. 스무살 무렵에는 침식을 거른 채 <주역>공부에 몰두한 나머지 건강을 크게 해치고 만다. 선생은 이때부터 평생을 숱한 병고에 시달리면서 살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

28세에 사마시에 급제하고 34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가 되면서 처음으로 관계에 발을 들이게 된다. 중종 말년의 어지러운 시국에서 친우인 김인후가 낙향하자 이때부터 은퇴할 결심을 굳힌다. 그 실행은 1543년 성균관 사성으로 승진하자 성묘를 핑계삼아 낙향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병약을 구실로 모든 관직에서 물러난다. 바로 이때부터 선생의 일생은 벼슬을 거절하는 '辭職'의 연속이 된다.

낙향한 선생은 독서에 전념한다. 이때 토계를 퇴계라 바꾸면서 자신의 아호로 삼았다. 물러날 퇴(退) 자를 아호로 쓴 그의 결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뒤에도 자주 임관의 명을 받았으나 매번 거절하고 못 이겨 관직에 나아감에도 주로 외지근무를 자원했다가 오래지 않아 고향으로 되돌아오곤 했다. 43세 이후 마지막 임관인 공조참판직까지 거절하거나 물러서기를 스무 번이 넘었다. 60세가 되던 해(1560년) 도산서당을 짓고 이후 7년간 이곳에서 독서, 저술, 수양에 전념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훈도하였다.

1567년, 선조가 즉위하자 선생은 68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선조의 간절하고 돈독한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대제학 지경연의 중임을 맡고 출사한다. 68세의 나이로 선조에게 올린 <戊辰六條疏>는 노학자가 어린 왕을 위해 평생을 닦은 학문을 펼쳐 '제왕의 길'을 여섯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선조는 이 소를 천고의 격언으로 여기고 한시도 잊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같은 해 선조에게 바친 <聖學十圖>는 자신이 오래동안 연구한 성리학의 요체를 열 가지로 도설화하여 조선식의 독자적인 학문 체계로 재편성한 것이다. 성리학을 공부하는 최종의 목표가 훌륭한 통치를 위한 것이므로 '성학'이란 성리학적 제왕학을 일컬으며 궁극적으론 정치학을 말한다. 퇴계 선생은 성학십도를 통해 최고 통치자인 제왕의 치열한 자기 연마

와 인격적 완성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듬해 69세에 이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낙향을 간청하며 마침내 허락을 받았다. 다시 고향에 돌아와 역시 독서에 전념하다가 70세가 되던 해 11월 종가의 시제 때 무리를 해서인지 우환이 악화되었다. 그리고 그달 8일 임종하였다.

퇴계는 참된 선비가 되기 위하여 항상 삼가고 물러나는 경건한 자세를 견지했던 선생이었으며 16세기 조선 왕조 전기의 체제이완으로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통치사상인 성리학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이루어내 통치이념의 기초를 닦은 나라의 스승이었다. 또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심세력인 사림을 양성하기 위해 자신은 물론, 제자들을 철저한 사상적 토대 위에서 의식화시킨 진정한 교육자이기도 했다.

2. 도산서원의 건학이념과 운영

연이은 사화(士禍)로 인해 뜻있는 선비들의 죽음을 목격하였고 급기야 형인 해(瀣)가 사화에 희생되는 아픔을 겪은 퇴계는 대략 50세를 전후한 시기에 정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교육으로 여생을 보낼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무렵 성균관 대사성으로서 사학(四學)[24]에 통문을 보내어 권학(勸學)을 당부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불과 몇 개월 만에 사직하고 고향에 내려와 본격적으로 후학양성에 힘쓰기로 한다.

도산서원이 처음부터 전형적인 형태의 서원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었다. 그 당시에는 선생의 공부방인 도산서당과 학생들 기숙사인 농운정사 두 채뿐이었으나, 선조 7년에 제자들이 그의 학문을 이어받을 서원을 짓기 시작해 도산서당, 진도문, 전교당, 동재, 서재 등의 강학공간과 인쇄원판을 보관하는 장판각, 도서실인 동광명실과 서광명실 등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퇴계는 풍기군수로 있던 1550년 (명종5) 군내 소재 백운동서원에 대해 사액을 요청하여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을 탄생시킨 이후로 도산서당을 직접 건립하기 이전까지 여러 서원건립에 깊숙이 관여했었는데 직접 지은 이산서원 원규(院規)를 살펴보면 서원교육에 대한 퇴계의 이념과 철학, 그리고 운영방식을 엿볼 수 있다. 도산서원은 별도의 원규 제정 없이 이산서원의 것을 그대로 준용하였

24) 조선 시대에, 나라에서 인재를 기르기 위하여 서울의 네 곳에 세운 교육 기관. 위치에 따라 중학(中學)·동학(東學)·남학(南學)·서학(西學)이 있었는데, 태종 11년(1411)에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고종 31년(1894)에 없앴다.4학(四學)은 성균관(成均館)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교육 정도가 낮은 점, 그리고 문묘(文廟)를 두지 않은 점 등을 제외하고는 교육방침·교육내용 등에서 성균관과 비슷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학 [四學] (교육학용어사전, 1995.6.29, 하우동설)

으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는 도덕적 인재 양성이다. 퇴계는 서원교육의 목적을 위기지학(爲己之學)[25]을 통한 도덕적 인재 양성에 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점은 사학뿐만 아니라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까지 재생(齋生)들의 학풍이 부박(浮薄)하여 오로지 관직을 얻기 위한 과거공부에만 열중할 뿐 위기지학을 알지 못하는 관학교육의 참담한 실패를 목격한 그가 올바른 사풍(士風)의 확립을 위해 서원교육에 나섰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확고한 신념이었다.

두 번째는 주자학적 교육원리이다. 퇴계는 서원의 교과과정으로 사서오경, 윤소학 루 윤라례르중심의 정통 주자학적 교육과정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주자서 이외에 사특하고 편벽된 서적은 도를 어지럽히고 뜻을 혼란시키는 것이라 하여 서원에 들여서도 안 되고 읽어서도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적 기숙학습에 관한 규정들이다. 이산원규에는 집단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규칙들이 가장 많은데 서원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집단적 기숙학습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에 아직 주자학에 대한 전문가나 전문서적이 부족하여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위기지학 자체가 관념적이거나 이론적인 공부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인교육이기 때문이었다.

집단학습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동·서재에 기숙하는 우생(寓生)에 대한 규정이다. 퇴계는 여기에 대해, "우생은 성년·미성년에 구애되지 않고, 정원을 정하지도 않으며, 재주를 갖춘 사람이라면 곧 서원에 들인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개방적 자세는 서원이 지역사회에서 학문과 교육의 센터로서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계는 이산원규에 도덕적 인재 양성, 주자학적 교육원리, 그리고 집단적 기숙 학습의 철학을 담았다. 이것은 단순히 서원운영의 편의를 위한 규정이 아니라 퇴계 교육철학의 표현이었다. 그에 있어서 서원은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철학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색과 실천을 위한 공간이었다.

3. 영남학파와 퇴계학파

영남학파란 조선 중기 성리학의 지역적 전개의 결과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된 학문상의 유파를 일컫는다. 당시 서울과 경기지방은 낙론계, 성호학파, 강화학파 등 국내외의 새로운 학문경향을 받아들이는데 용이했던 반면 그 외의 지역은 그로

25) 자신의 인격 수양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부터 소외되는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26] 그로 인해 각 지방에서는 독자적이고 개성적인 학맥과 학풍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고 그 결과 18세기 조선 성리학의 전개는 지역적으로 세분화되었다.

그에 따라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영남학파의 학풍은 기본적으로 이황과 조식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영남학파는 이황의 이기심성론 연구를 통해 율곡학파의 성리론을 비판한 것에서부터, 비록 제한적이긴 했으나 서애 류성룡의 학풍을 따라 상수학과 천문학을 연구한 것까지 매우 다양한 학풍을 가지고 있었다.[27] 이렇듯 매우 다양한 사상적 특징을 지닌 영남학파의 분파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며 각각 영학파, 남명학파, 퇴계학파, 여헌학파로 불린다.

첫째, 영학파는 영남사림파로도 불리며 고려 말기 정몽주와 길재를 계승한 김종직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조선 초중기 훈구파와의 갈등을 겪으며 세력이 크게 시들었다.[28]

둘째, 남명학파는 진주 중심의 경상우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며 조식의 사상을 종장으로 하였다. 그에 따라 이기심성론보다는 현실 문제에 관심이 많았으며 이단사상에도 너그러웠다. 남명학파의 학풍은 반궁체험, 지경거의, 충신진덕, 독행수도를 특징으로 한다. 이들은 주로 동인세력의 핵심을 이루다 이후 북인세력으로 결집하여 광해군과 정국을 주도하였고 그 결과 인조반정으로 인해 축출되어 학파로서 와해되었다. 주요 인물에는 김효원, 오건, 김우웅, 정인홍 등이 있다.[29]

셋째, 퇴계학파는 안동 중심의 경상좌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이황의 사상을 종장으로 하였다. 퇴계학파는 주로 이황의 철학사상 중 이기호발설과 사칠이기분개설에 집중하였다. 이들은 초반에는 동인과 뒤이은 남인의 핵심세력이 되는 등 탄탄한 정치적 기반 위에 있었으나, 17세기 이후부터는 정치의 주변부로 밀려나게 된다. 주요 인물에는 유성룡, 김성일 등이 있다.[30]

마지막으로, 여헌학파는 한강과 여헌의 학풍을 계승한 학파로 그 이름을 따 한려학파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학파는 주로 성주, 인동, 고령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성주 문화권을 기반으로 전개되었다. 이들의 사상적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퇴계학과 남명학의 접점지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인 특성이 그들의 사상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의 사상은 퇴계학과 남면학을 동시에 통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학풍을 전개해 나갔다. 주요 인물로는 한강, 배신, 오운,

---

26) 조성산, 2006 18 영 · 호남 유학의 학맥과 학풍」『국학연구 제9집』177쪽.
27) 위의 논문과 같음. 176쪽.
28) 이 부분은 위의 논문 179-192쪽을 주로 참고하였음.
29) 이 부분은 장윤수, 2008「조선 중기 고령유학의 특징-회통성, 개방성, 실천성을 중심으로 하여」『동양사회사상 제18집』173-179쪽을 주로 참고하였음.
30) 이 부분은 권연웅, 2005「한국성리학의 지방학적 성격」『국학연구 제7집』18-21쪽을 주로 참고하였음.

김면 등이 있는데 이들 중 다수는 퇴계와 남명을 함께 스승으로 모시기도 했다.

이렇듯 매우 다양한 사상적 특징을 지닌 영남학파의 분파들은 결국 17세기 이후 인조반정, 무신란 등의 여러 가지 정치적 격변을 겪으며 와해되거나 소멸된다. 결과적으로 안동을 중심으로 한 퇴계학파만이 보수적인 사상적 전통을 지켜내며 영남학파를 대표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남학파의 중심지는 자연스레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 북부 지역으로 한정되었다.[31]

<참고문헌>

- 이준, 1999,『문화기행 / 서원을 찾아서 - 조선조의 통치사상을 완성시킨 퇴계 이황 선생을 모신 도산서원』Vol.31, 재정포럼
- 이준, 1999,『문화기행 / 서원을 찾아서 - 임진왜란이라는 절대위기를 이겨낸 위기관리의 일인자 서애 유성룡 선생을 배향한 병산서원』Vol.32, 재정포럼
-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2003,『우리 역사문화의 갈래를 찾아서-안동문화권』, 역사공간
- 조동걸, 2003,『한국근현대사의 탐구』, 경인문화사
- 권연웅, 2005,「한국성리학의 지방학적 성격」, 국학연구 제7집, 국학연구소
- 이호일, 2006,『조선의 서원』, 가람기획
- 조성산, 2006,「18세기 영·호남 유학의 학맥과 학풍」, 국학연구 제9집, 국학연구소
- 강윤정, 2007,「정재학파의 현실인식과 구국운동」,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국립중앙박물관, 2007『하늘이 내린 재상, 류성룡』, 국립중앙박물관
- 김학수, 2007,『영남지역 사원의 정치사회적 성격 』, 국학연구 제11집, 국학연구소
- 강윤정, 2008,「백하 김대락의 민족운동과 그 성격」, 추모학술강연회자료집, 청년유도회
- 장윤수, 2008,「조선 중기 고령유학의 특징-회통성, 개방성, 실천성을 중심으로 하여」, 동양사회사상 제18집, 동양사회사상학회
- 김종석, 2012,「도산서원陶山書院의 이념과 그 전개」, 안동학연구 11집, 한국국학진흥원
- 유홍준, 2012『나의 문화유산답사기3 -말하지 않는 것과의 대화』, 창비
-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 [네이버 지식백과] 사학 [四學] (교육학용어사전, 1995.6.29., 하우동설)
- 병산서원, 2006, http://http://www.byeongsan.net/

31) 이 부분은 장윤수, 2008 중기 고령유학의 특징-회통성, 개방성, 실천성을 중심으로 하여」『동양사회사상 제18집』173-179쪽을 주로 참고하였음.

V. 망국의 위기에서 조선을 구한 서애 류성룡

2조: 고혜진, 이지유, 임다송

1. 서애 류성룡

류성룡은 25세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였고, 이이와 함께 사가독서의 영예를 누렸다. 한사코 관직을 거부했던 스승과 달리 그는 이조 정랑, 사간원 대사간, 예조판서, 양관 대제학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빠른 승진을 거듭하였고, 이성계가 이인임의 후손으로 잘못 기록된「대명회전」때문에 발생한 종계와 관련된 외교문제를 해결하여 광국공신 3등에 책봉되기도 했다. 특히 1567에 즉위한 선조와 1566년에 과거에 급제한 류성룡은 비슷한 시기에 정치를 시작하여 오랜 기간 함께하였기 때문인지 선조는 류성룡은 각별히 생각했다. 사직을 청하는 류성룡에게 '그대와 나는 정으로 볼 때 친구와 같다', '그대를 잘 알기로는 나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며 그에 대한 강한 신임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조의 절대적 신임 덕분에 류성룡은 기축옥사의 화를 피할 수 있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1년 전에 성곽을 수축하고, 군기를 점검하며, 무명 말직이었던 이순신과 권율을 각각 전라좌수사와 의주목사에 천거하여 일본의 침략을 대비하였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류성룡은 도체찰사직을 맡아 전군을 지휘하며 평양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는 영의정의 자리에서 파직되었음에도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하였지만, 국경을 넘어 명나라로 피난하자는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끝까지 항전하여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수도를 수복한 후에, 군사력을 기르기 위해 그의 건의로 설치된 훈련도감 제조에 부임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군비 보완을 위해 애썼다. 그러나 전란이 끝날 무렵 북인들의 탄핵을 받아 관직을 삭탈당하고, 후에 복관되었음에도 조정에 나아가지 않고 은거하였다.

고향으로 돌아온 류성룡은 참혹했던 임진왜란을 반성하기 위해「징비록」과 하회 풍산류씨의 뿌리를 실증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종천영모록」을 저술하는데 몰두하였다. 그 후 병을 얻은 류성룡은 1607년 66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선조는 예조의 관원을 보내 치제하였고, 조회와 시장을 3일 동안 정지하였다. 또한 시장의 백성들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곡을 하였다.

서애는 임진왜란이라는 국가 최대의 위기의 상황에서 뛰어난 위기관리능력으로 활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임진왜란에서 결정적이었던 명의 참전도 그의 뛰어난 외교능력의 공이 컸다. 그는 일본이 전쟁을 시작한 명분이 명을 치러가는 길목을 조선이 내 달라는 부탁을 조선이 거절했기 때문임을 명에 어필하였고, 그것이 명의

참전으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그는 무명이던 이순신과 권율을 천거하였는데, 이 두 인물이 명량대첩과 행주대첩 등 결정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밖에 백성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자에게 신분에 상관없이 상을 주었고, 선조가 조선의 국경을 넘는 것을 반대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등 많은 공을 세웠다[32].

2. 병산서원

병산 서원의 전신은 고려 중기, 풍산현에 위치해있던 풍악서당이다. 풍악서당은 풍산 류씨 문중의 사설교육기관이었다. 1572년 (선조5)에 류성룡이 서원 가까이 집이 들어서고 그 일대가 시끄러워지자 학문을 하는 데에 있어 적절치 않다 생각하여 서당을 지금의 병산으로 옮겼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소실되었지만 1607년 (선조40)에 중건하였고, 1613년 (광해군5), 류성룡이 타계하자 그의 제자인 창석, 이준 등 문인들과 지방 유림의 공의로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위패를 봉안하고 존덕사 (尊德祠)가 되었다.

병산서원은 풍산 류씨의 집성촌인 하회마을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류성룡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그런데 류성룡의 위패를 모시기 까지의 과정이 참으로 기구하다. 류성룡의 위패는 그가 죽은 이후에 몇 번의 이동을 겪었다. 존덕사는 1614년 병산서원으로 개칭하였는데, 1620년(광해군12)에 유림의 공론에 따라 퇴계 선생을 모신 여강서원으로 위패를 옮기게 되었다. 이러한 이동의 배경에는 '퇴계적전화' 문제가 있었다.

즉 퇴계의 적통으로 그를 계승하는 학자가 류성룡인지 김성일인지를 두고 그들의 제자들 사이에 경쟁이 있었던 것이다. 생전에 절친했던 두 사람이 사후에는 이러한 일을 겪었던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어쨌든 여러 사원을 설치하는 폐단을 막고 둘을 함께 추배하기 위해 김성일과 류성룡은 합향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들의 칭호나 순서를 두고 많은 논란이 계속되었다. 이황의 적통을 규명하는 것이 당시 학자들의 정통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것 같다[33].

결국 1629년(인조9)에는 서애가 직접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에 위패를 모셔야 한다는 유림의 논의가 크게 일어나 별도의 위패를 마련하여 다시 존덕사에 모시게 되었으며, 이때 그의 셋째 아들 수암 류진이 추가로 배향되었다. 후에 철종 14년에 사액되어 서원으로 승격하였다. 병산서원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 훼철(헐어

32) 부분은 '이준, 1999,『문화기행 / 서원을 찾아서 - 임진왜란이라는 절대위기를 이겨낸 위기관리의 일인자 서애 유성룡 선생을 배향한 병산서원 』, 재정포럼, Vol.32,' 을 주로 참고하였음.

33) 이 부분은 '김학수, 2007,『영남지역 사원의 정치사회적 성격 』, 국학연구 제11집' 을 주로 참고하였음.

서 치워버림)되지 않은 서원 중 하나로 오늘에 이르렀으며, 도동서원, 도산서원, 소수서원, 옥산서원과 함께 조선시대 5대 서원으로 손꼽힌다. 일제강점기 시기 대대적인 보수가 행해졌고 1978년 사적 제 260호로 지정되었다.[34] 현재 병산서원에는 서애 선생의 문집을 비롯하여 각종 문헌이 소장되어있다.[35]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학자의 위패를 모신 사액서원이라는 점 외에도, 병산서원은 그 건축적, 미적 가치에서도 높게 평가된다. 이 서원은 서원 정신이 한창 부흥하던 시기에 지어져, 내부로는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등 초창기 서원건축 양식을 모범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원은 교학을 위한 강학 건물과 제향 건물, 부속시설로 구성되는데, 병산서원 또한 강학건물에 속하는 복례문, 만대루, 동서재, 입교당, 장판각, 제향건물에 속하는 신문, 존덕사, 전사청을 가진다.

또한 전학후묘(前學後廟)의 구성 원리에 따라 앞쪽에는 강학공간을, 강당을 지나 서원 뒤쪽에는 사당을 배치하였다. 내부는 이처럼 모범적인 서원의 양식을 따르고 있으나, 병산서원이 감탄을 자아내는 것은 주변과 어우러지는 자연미이다.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제3권에서는 "역사적 의의 말고 미술사적으로 말한다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원건축으로 한국건축사의 백미이다."[36]라고 표현한다.

언뜻 보면 앞뒤로 산에 둘러싸여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만대루에 오르면 마치 서원이 앞에 보이는 병풍 같은 병산과 넓게 펼쳐진 낙동강의 백사장을 끌어들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다. 만대루는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지은 누각으로, 유생들의 회합장소로 많이 이용되었다. 병산서원의 백미로 꼽히는 이 건물은 사방이 트여있으며 지형적으로도 높게 위치해있어 웅장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으로 인공적인 서원건축과 자연을 연결해준다. 이처럼 자연 속에서 자연을 품고 있는 듯한 아름다운 병산서원은 유교건축의 백미로 손꼽힌다.

---

34)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2003,『우리 역사문화의 갈래를 찾아서-안동문화권』, 역사공간, 304쪽 참조.
이호일, 2006,『조선의 서원』, 가람기획, -쪽 참조.
35) 인터넷자료, 병산서원, 2006, http://http://www.byeongsan.net/.
36) 유홍준, 2012,『나의 문화유산답사기3 -말하지 않는 것과의 대화』, 창비, 143쪽.

<참고문헌>

- 이준, 1999,『문화기행 / 서원을 찾아서 - 조선조의 통치사상을 완성시킨 퇴계 이황 선생을 모신 도산서원』Vol.31, 재정포럼
- 이준, 1999,『문화기행 / 서원을 찾아서 - 임진왜란이라는 절대위기를 이겨낸 위기관리의 일인자 서애 유성룡 선생을 배향한 병산서원』Vol.32, 재정포럼
-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2003,『우리 역사문화의 갈래를 찾아서-안동문화권』, 역사공간
- 조동걸, 2003,『한국근현대사의 탐구』, 경인문화사
- 권연웅, 2005,「한국성리학의 지방학적 성격」, 국학연구 제7집, 국학연구소
- 이호일, 2006,『조선의 서원』, 가람기획
- 조성산, 2006,「18세기 영·호남 유학의 학맥과 학풍」, 국학연구 제9집, 국학연구소
- 강윤정, 2007,「정재학파의 현실인식과 구국운동」,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국립중앙박물관, 2007『하늘이 내린 재상, 류성룡』, 국립중앙박물관
- 김학수, 2007,『영남지역 사원의 정치사회적 성격 』, 국학연구 제11집, 국학연구소
- 강윤정, 2008,「백하 김대락의 민족운동과 그 성격」, 추모학술강연회자료집, 청년유도회
- 장윤수, 2008,「조선 중기 고령유학의 특징-회통성, 개방성, 실천성을 중심으로 하여」, 동양사회사상 제18집, 동양사회사상학회
- 김종석, 2012,「도산서원陶山書院의 이념과 그 전개」, 안동학연구 11집, 한국국학진흥원
- 유홍준, 2012『나의 문화유산답사기3 -말하지 않는 것과의 대화』, 창비
-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 [네이버 지식백과] 사학 [四學] (교육학용어사전, 1995.6.29., 하우동설)
- 병산서원, 2006, http://http://www.byeongsan.net/

VI. 유교사회의 독특한 문화, 동족촌락

3조: 송선아, 송지은, 이필오, 정수연, 최연실

1. 동족촌락이란?

인간은 일정한 장소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가호들의 집합을 이루게 되고 이에 따라 사회생활 최소의 지역적 단위라 할 수 있는 마을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마을을 구성하는 사회집단에는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원형적인 사회집단은 혈족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37] 이러한 혈족집단에서 발생한 同族村落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회, 문화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동족촌의 여러 특징들을 밝히는 일은 한국의 사회구조와 그 구조를 이루어온 主體들의 가치체계, 그리고 이것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적 특성을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38]

동족촌락은 조선 초, 중기부터 형성되었다. 주로 地緣적 동족조직에 해당되는데, 入鄕祖의 입향에서부터 촌락은 형성된다. 입향의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입향한 경우 또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자가 입향한 경우 등이 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기반이 있는 입향의 예로는 지방관을 지낸 자가 관직을 물러난 후 그대로 정주하거나 수년 후 다시 와서 정착하여 그 자손이 번영하는 경우가 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불평을 품고 산간으로 은둔하거나 또는 죄를 지어 유배되어 그대로 정착한 자의 자손이 발전한 것 등이 해당된다. 이들이 조선 후기에 이르러 세습된 신분과 동족조직을 배경으로 각자의 지역에서 사족세력으로 분류된다.[39]

동족촌의 상당수는 17세기 중엽 이후 성리학이 도입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종법제도가 정착되면서 생겨났다. 성리학의 이념에 따라 동족촌락은 부계적 특성을 강하게 띠었다. 여성은 재산상속에서 제외되고, 부부가 처가에 머무르는 서류부가의 기간이 단축되면서 혼인한 아들들이 가까운 마을에서 분가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반면에 처가에서 장기간 거주하거나 영구히 정착하던 사위들은 친가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을은 점차 특정한 성씨의 자손들만이 집단 거주하는 종족촌락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가까운 부계 혈족이 한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거주하

37) 홍현욱, 1985「南陽洪氏 同族社會集團의 地域化 過程 : 華城郡 弘法里 同族村의 社會地理學的 硏究」pp.383-384 참조.
38) 최기엽, 정혜정, 1990「동족촌의 지역화 과정과 공간구성 :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덕봉리 일원 사례연구」『국토지리학회지 Vol.16 No.1』, pp.17-18 참조.
39) 정승모, 1993「동족촌락의 형성배경」『정신문화연구 Vol.16 No.4』pp.43-44 참조.

는 형태의 종족촌락이 형성되는 것이다.[40]

부계의 적통으로 가계를 계승하는 종법제도가 정착되고 조상숭배의식이 강화되면서 누대에 걸친 조상의 묘소를 관리하고 이들을 성대하게 제사지내기 위해서는 이를 주관하기 위한 항시적인 조직이 필요하였다. 뿐만 아니라 특정 조상의 모든 자손들을 망라하는 대규모 족보를 주기적으로 간행하기 위해서도 조직이 필요했다. 그 결과 혈연집단이 체계적으로 결합한 문중조직이 등장하게 되고, 종족촌락을 중심으로 성장,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겨난 문중조직은 현대사회에서도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조직으로 여전히 강한 활동력을 보여주고 있다.[41] 지금까지 남아 있는 대표적인 동족촌락으로는 하회리 풍산 류씨, 단천리 풍산 김씨 등이 있다.

2. 하회마을과 풍산류씨

豊山 柳氏는 고려시대 토성이족으로, 戶長을 세습하면서 풍산현에 거주하였다. 14세기 중엽에 典書公 柳從惠가 본관지를 이탈하여 신분을 사족으로 상승시키면서 河隈村으로 이거하였다. 16세기까지 하회에는 류씨·배씨와 그들의 女婿가 거주하였는데, 洞員綠의 내용으로 보아 허씨·안씨가 함께 거주했던 異姓 잡거촌이었다.

16세기 말에서 17세기에 들어오면서 성리학적 가부장제가 확립되고 장자 중심의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면서 제사도 장자가 맡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점차 동족촌락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하회의 경우 謙庵 柳雲龍과 西厓 柳成龍이라는 이름난 인물을 배출함으로써 정치적·사회적 기반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쉽게 풍산 류씨 동족촌락으로 변모했을 것으로 짐작된다.[42]

일제강점기인 1935년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조선의 취락』에 따르면, 1930년 하회마을 가구 수는 모두 290호였다. 그 가운데 동성인 풍산류씨가 마을 전체 가구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1961년 간행된 『안동대관』에 따르면 하회마을의 총 가구 수는 249가구, 인구는 1,328명이다. 그 뒤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2004년을 기준으로 하회마을의 총 가구 수는 104호이며 이 중 풍산류씨가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마을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동장, 하회마을 보존회장, 상가번영회장, 종가 등은 풍산류씨들이 독점하고 있다.[43]

물이 돌아 흐른다고 하여 '물동이동'이라고도 하는 하회는, 이외에도 하회·河上江村·河隈·河村이라고도 불린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안동시 서남단에 위치한 풍천면의

40) 이 부분은 이창기, 2010 「성리학의 도입과 한국가족제도의 변화」를 주로 참고하였음.
41) 이창기, 2010 위의 논문
42) 이 부분은 김택규, 1964 「동족부락의 생활구조연구」 (청구대학)을 주로 참고하였음
43) 이 부분은 문태현 외, 2003 「안동 하회마을의 문화관광 정책」 『안동학 연구』 (안동대학교 안동문화 연구소)를 주로 참고하였음.

마을로, 하회1리와 서원·적은못골·아래밀골·웃밀골·새마을이 속한 하회2리로 나뉘어 있다. 하회마을은 마을의 주산에 해당하는 화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다리미 모양을 한 곡류천의 퇴적 면이 반도를 이룬 배산임수형이다. 풍수지리상으로 蓮花浮水形, 또는 山太極水太極을 이루는 '태극형'의 형국을 이루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배가 떠나는 형국이라 해서 '行舟形', 혹은 마을의 모양을 본 따 '다리미형'이라고도 한다.

산세를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화산은 마을을 향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그 산록에는 농경지가 자리하고 있다. 하당(일명 삼신당)에서 잠시 내려섰다가 다시 올라가는 둔덕에는 하회마을의 주요한 경관을 상징하는 養眞堂과 忠孝堂 등이 위치하고 있다. 풍수지리상 화산의 맞은편의 案山이 되는 남산은 화산 건너편 日月山의 끝닿는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련의 산봉우리들을 총칭하는 단어이다. 남산의 우측 후방에는 있는 朝山 격의 원지산은 원지라는 약초가 많이 나는데, 과거에는 송이버섯과 시효가 자생했다.

하회마을의 지맥을 둘러싸고 흐르는 화천은 낙동강 중상류에 위치한다. 우기에는 화천이 범람해 마을 입구의 농경지들의 피해가 컸다. 따라서 과거 농사를 섬들에 많이 지었던 시절에는 장마철 화천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눈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리미형국이라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혹은 행주형이라서 배에 구멍을 내지 않기 위해 마을에 우물 파는 것을 꺼리던 주민들에게 화천은 식수로서의 역할도 유용하게 해내었다. 자동차를 통한 육로 교통이 발달하기 이전까지 교통로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내었다. 과거에는 충효당 앞에도 나루터가 있어 각기 광덕과 앞개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갈수 있었으나, 현재는 부용대 앞의 배나들에만 나루터가 있다.

이밖에 하회마을의 무형 문화유산으로는 대표적으로 화전놀이와 선유줄불놀이가 있다. 먼저 화전놀이에 대해 살펴보면, 하회마을의 여성들은 날씨가 따뜻해져 꽃이 필 무렵이면 가까운 곳으로 화전놀이를 갔다. 장소는 주로 병산서원, 옥연정사 등의 경치가 좋은 곳을 선호했다. 화전놀이를 할 곳에 도착하면 주로 비빔밥을 해먹은 다음 참꽃을 꺾어 화전을 만들어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가사를 지어 자신들의 실력을 뽐내거나 윷놀이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갔다. 선유줄불놀이는 매년 7월 旣望에 정례적으로 행해졌다. 품격 있는 양반놀이 문화의 정수로 알려진 선유줄불놀이는 불꽃놀이와 뱃놀이, 그리고 달걀불과 선상의 詩會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선유가 주이고 줄불과 달걀불, 낙화는 선유의 흥취를 돋우기 위한 부대 행사였다. 이 놀이는 1933년경까지 전승되다가 중단되었으나 현재 복원되어 행해지고 있다.[44]

44) 이 부분은 서용수, 1999『안동 하회마을』(민음사)을 주로 참고하였음.

또한 양반문화 못지않은 유무형의 다양한 민속 문화가 전승되고 있다. 먼저 대표적인 민속문화로는 하회탈을 꼽을 수 있다. 하회탈은 국보로 지정되어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원래 양반, 선비, 중, 초랭이, 각시, 할미, 부네, 이매, 백정, 총각, 별채, 떡다리 등 12개의 탈이 있었으나 현재는 별채, 총각, 떡다리탈을 제외한 9개의 탈만 전한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하회탈의 제작 시기는 고려 후기인 12세기경으로 추정되어 그 역사적 가치가 깊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동제와 하회 별신굿 탈놀이를 들 수 있다. 동제는 정월 대보름과 사월 초파일에 올린다. 하회마을에서는 다른 마을과 달리 종신토록 동제와 별신굿의 제관 노릇을 하는 산주를 정해 두고 매월 삭망 때마다 서낭당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서낭신의 계시에 따라 별신굿을 주관하고 있다.

한편 성황제는 동제인 평상제와 5년 또는 10년마다 부정기적으로 행하는 별신굿이 있다. 하회 별신굿 탈놀이는 1928년인 戊辰年에 마지막으로 연행되었는데, 그 해가 성황신의 甲年이었다. 즉 별신굿은 성황신에 대한 大祭이며, 탈놀이는 별신굿의 한 부분인 娛神 행위에 해당했던 것이다. "하회 별신굿을 보지 못하면 죽어서 좋은 데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하회마을 별신굿은 근동에서 유명했다. 그래서 1928년 무진년에도 인근 마을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별신굿을 구경했다고 전한다.

3. 내앞마을과 의성김씨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에 위치한 내앞마을은 의성 김씨 동족마을이다. 의성 김씨의 시조는 신라 56대 경순왕의 넷째 아들(혹은 다섯째 아들이라고도 한다)인 錫이다. 고려 태조의 외손이기도 한 그가 '義城君'에 봉해진 때문에 본관이 의성이 되었다. 고려 말엽에 金居斗가 고려의 국운이 기울어져감을 보고 안동의 풍산에 내려오게 된 것이 이 일족이 안동에 자리잡게 된 계기이다. 그 후손인 金萬謹이 임하현의 오씨에게 장가들게 되면서 처가가 있는 내앞마을로 옮겨온 뒤로 내앞은 점차 의성 김씨 동족마을을 이루게 되었다.

이처럼 조선 전기에는 남녀균분 상속이 이루어져 처가나 외가가 있는 곳에 거주하는 일이 많았고, 외손이 제사를 받드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그럴 때에는 처가나 외가를 따라온 성씨들도 한 마을에 자리잡기 때문에 다른 성씨끼리 한 마을에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대략 17세기쯤부터 장손의 봉사로 제도가 굳혀지게 되면서 한 성씨가 한 마을을 이루는 동족마을이 형성되었다.

내앞의 의성 김씨 대종가는 내앞에 자리잡은 김만근의 손자인 靑溪 金璡을 불천위로 모시는 종가이다. 그에게 한 관상가가 "살아서 벼슬을 하면 참판에 이를 것이나 자손 기르기에 힘쓰면 죽어서 판서에 오를 것"이라고 예언을 해서 자신의 벼슬

보다는 자손의 영예를 선택하였다는 속설이 전한다. 그는 대과 준비를 포기하고 내앞마을에 돌아와 일생을 자제 교육과 향촌 교화, 그리고 경지 개간에 힘썼다. 또 그는 장학제도를 마련하여 文章劍, 文章沓을 두어 자손 중에 학문이 뛰어난 사람에게 전수되도록 할 만큼 학문 장려에 힘을 기울였다.

그래서인지 그의 아들 다섯 중 셋은 문과에 급제하고 둘은 소과에 급제하였으므로 사람들은 청계 김진의 집을 일컬어 '다섯 아들이 과거에 급제한 집'이라는 뜻으로 '五子登科宅'이라고 불렀다. 김진의 넷째 아들인 학봉 김성일을 비롯하여 내앞의 의성 김씨 가운데 문과에 급제한 사람이 24명, 생원이나 진사에 나간 사람이 64명에 이른 것을 큰 자랑으로 삼는다. 그러나 학문하여 스스로를 닦는 것을 급제나 벼슬보다도 더 중히 여기는 전통을 지니고 있다.[45]

풍수지리적 입지로 내앞마을은 4대 길지에 속해 있기도 하다. 『택리지』의 저자 이중환은 양반, 선비가 살만한 영남의 4대 길지로 안동의 도산, 하회, 천전, 봉화의 닭실을 꼽았는데, 그가 꼽은 4대 길지 중 하나인 천전마을에 의성김씨 종택이 있다. 내앞마을을 풍수에서는 "달빛 아래 비단을 빨아 넣은 형국"이라 한다. 아름다운 비단을 밝은 달빛에 세탁하면 더욱 아름다워지듯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땅의 기운을 감응받아 자손이 번성하고 더욱 더 훌륭한 인물을 배출할 수 있다는 길지 해석이다.[46]

이렇게 의성 김씨 일족은 내앞마을에 정착하여 이후 400년 간 사회경제적 기반을 확충하여 안동지방의 대표적인 사족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기반이 약화되었다. 1895에 일어난 의병항쟁은 의성 김 씨 문중이 독립운동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 즈음 연이은 喪故로 항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안동창의소에서 항쟁을 지원하기 위해 각 문중별로 군자금을 배분할 때, 800냥이 배분되었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문중은 의병항쟁만으로는 국권을 회복할 수 없다는 한계를 절감하고 계몽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 결과 1907년 내앞마을에 안동 최초의 근대식 교육 기관인 協東學校가 설립되었다. 의성 김 씨 소장 유림의 다수가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참가하였다. 경술국치 직후에는 문중의 많은 사람들이 서간도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이들은 학교를 세우고 농지를 일궈 독립군 양성에 주력했으나 경신참변으로 촌락이 폐허로 변하자, 북만주로 이주하여 그 곳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상당수의 문중 일가가 간도로 망명하면서 재산을 처분하여 독립운동에 쏟아 부

45) 이 부분은 [네이버 지식백과] 의성 김씨 종가와 내앞마을 (답사여행의 길잡이 10 - 경북북부, 초판 1997, 15쇄 2010, 돌베개)을 주로 참고하였음.

46) 이 부분은 [네이버 지식백과] 의성 김씨 종택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한국의 풍수지리), 2004,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주로 참고하였음

었으나 간도의 척박한 환경과 일제의 탄압에 문중의 경제적 처지는 악화되었고, 고향 사람들에게 도움을 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내앞마을에서는 전답을 매각하여 자금을 지원하였다. 이 결과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사이, 지주층이던 내앞문중 사람들은 자작농이나 자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이는 향촌에서 문중의 위상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참고문헌>

- 김택규, 1964,「동족부락의 생활구조연구」, 청구대학
- 홍현옥, 1986,「南陽洪氏 同族社會集團의 地域化 過程 : 華城郡 弘法里 同族村의 社會地理學的 硏究」, 성신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최기엽, 정혜정, 1990「동족촌의 지역화 과정과 공간구성 :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덕봉리 일원 사례연구」, 국토지리학회지 Vol.16 No.1, 국토지리학회
- 정승모, 1993,「동족촌락의 형성배경」, 정신문화연구 Vol.16 No.4, 한국학중앙연구원
- 임재해, 1994,『민속마을 하회여행』, 밀알
- 김시인, 1995,「의성김씨 학봉종택」, 문화재청
- 돌베개, 1997, 의성 김씨 종가와 내앞마을, 답사여행의 길잡이 10, 돌베개
- 서용수, 1999,『안동 하회마을』, 민음사
- 윤천근, 1999,「안동지역 퇴계학파 IV.퇴계이황의종가」, 안동문화 7, 안동문화원
- 이순형, 2000,『한국의 명문 종가』,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종길, 2001,「학봉종택」, www.hakbong.co.kr
- 문태현 외, 2003,「안동 하회마을의 문화관광 정책」, 안동학 연구,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 문화콘텐츠닷컴, 2004, 의성 김씨종택, 문화원형백과 한국의 풍수지리 한국콘텐츠진흥원
- 박장영, 2004, 안동의 종가 안동의 종택을 찾아서 26, www.andong.net
- 배영동, 2004,「종가의 사당을 통해본 조상관」, 韓國民俗學 39, 한국민속학회
- 김미영, 2006,「조상 제사를 둘러싼 이론과 실제-안동지역 불천위제사의 제물과 진설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9권 1호, 역사문화학회
- 하국근, 2008,「안동 내앞마을」, 하국근의 風水기행 8, 매일신문
- 김복영, 2009,「진성이씨」, 디지털안동문화대전
- 정진영, 2009,「퇴계종택」, 디지털안동문화대전
- 이창기, 2010「성리학의 도입과 한국가족제도의 변화」
- 김복영. 2012,「의성김씨」, 디지털안동문화대전
- 박재락, 2012,「안동지역 종택(宗宅)마을의 입지와 공간 고찰」, 동북아문화연구 30, 동북아시아문화학회

VII. 양반의 주거문화 종택

3조: 이항섭, 김기민, 신정수, 유계현, 이영은

1. 종택과 제사

宗家는 始祖로부터 대대로 宗子로만 이어져 오는 집을 의미하며, 宗宅은 구체적인 건축물로써 한 마을의 入鄕祖가 터를 잡은 최초의 주거공간으로 대대로 그 자손들이 살고 있는 집을 의미한다. 답사지인 안동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종택이 위치하고 있다. 이는 풍수지리 사상에서 종택을 명당으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안동지역이 전통적으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47]

종가문화는 조선 중기를 거치면서 완성되어 조선 말기에 이르러 문화적 정형성을 획득한다. 이는 종가문화가 유학 문화를 전제로 하는 향촌사회의 성장과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본래 중국의 종법에서 대종은 제후의 別子(별자, 즉 서자)로부터 적장자를 잇는 친족집단이며, 소종은 제후의 별자의 衆子(중자, 즉 장자를 제외한 아들)로부터 적장자를 잇는 친족 집단이다. 한국에는 제후가 없었기 때문에 대개 대종가는 성씨의 시조로부터 장자로만 이어진 가문을 말하며, 소종가는 대종가에서 중시조를 기점으로 파생된 종가를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엄밀하게 한국의 소종가는 不遷位 조상인 중시조를 모시는 가문으로서 한국의 종법에만 있는 派宗을 의미한다.[48] 불천위는 국가에의 공헌에 따라서 평가되어 임금이 시호를 내리면서 위패를 사당에서 옮기지 않고 대대손손 그 조상의 제사를 모시게 한 제도다. 불천위 결정은 정치적 의미를 지니므로 불천위 종가는 정치적 세력 간의 투쟁과 무관하지 않아서 종가는 사화 및 환국의 시점에서 주로 형성되었다. 종가의 중시조인 인물들이 조정에 들어가 활약하다가 사화에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산 4년의 戊午士禍로 金宗直, 鄭汝昌, 金宏弼 등의 종가가 형성되었으며, 숙종 15년의 己巳換局의 과정에서는 宋時烈, 金壽恒 등의 종가가 형성되었다.[49]

특히 남인을 중심으로 종가문화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남인이 숙종 20년 甲戌獄事 이후 일찍이 실권하였기 때문에 낙향하여 향촌사회에서 나름대로의 경제적·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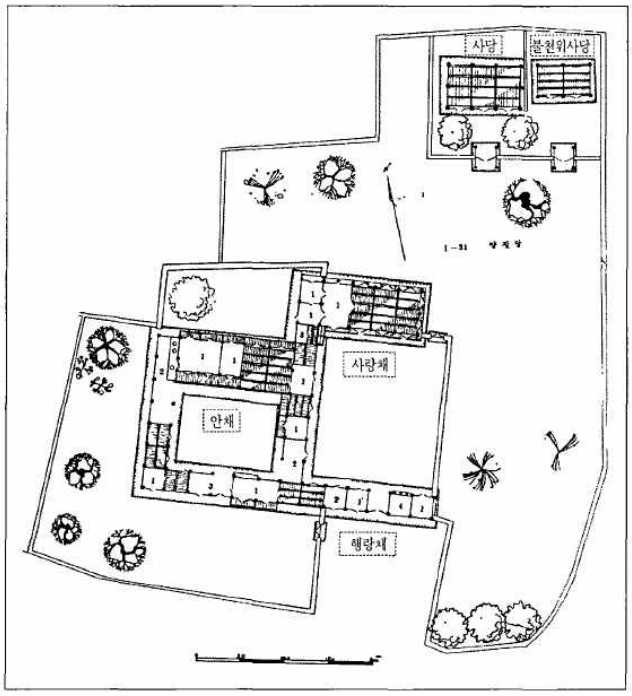
47) 박재락, 2012 「안동지역 종택(宗宅)마을의 입지와 공간 고찰」 『동북아문화연구』 30(동북아시아문화학회), pp.177~182 참조.
48) 배영동, 2004 「종가의 사당을 통해본 조상관」 『韓國民俗學』 39(한국민속학회), pp.121~123 참조.
49) 이순형, 2000 『한국의 명문 종가』 (서울대학교 출판부) pp.22~23 참조.

적 기반을 유지하려하였기 때문이다.

다산 정약용이 말했듯이 안동지역의 선비가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가문마다 선조를 정신적 지주로 삼고 일정한 지역을 점유하여 일가끼리 살면서 토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흩어지지 않았으므로 공고하게 유지되어 뿌리가 뽑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정치에서 배제된 영남남인이 조상에 대한 흔적,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종가문화를 발전시킨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이들은 조정에서 불천위로 내리는 國不遷 이외에도 스스로 鄕不遷을 만들어 종가를 형성하기도 하였다.[50]

그러므로 종가의 형성은 불천위제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종택은 종가의 집단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천위제사가 행해지는 장소이자 불천위사당이 위치하는 장소로서 의미를 갖는다.

김미영 한국국학진흥원 연구원은 "유교의 조상제사는 부모가 생전에 베풀어준 사랑에 대한 은혜 갚음의 행위 곧 효의 실천적 행위이면서 동일한 조상에서 갈라진 후손들이 모여 자신들의 혈통적 계보를 재확인하고 위계질서를 확립하는 장이다"[51]라고 정의하였다. 초월적 신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종교제사와 달리 유교의 조상제사는 살아있는 자의 실행과 의식의 사회적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제사의 절차와 격식이 중요시되는데, 조선은 운의례로 운예기로와 같은 예서를 통해 이를 명시하기도 했다.



〈그림 3〉 하회마을 양진당 평면도(장기인·강신표 외, 1979 : 131 참고)

전통적으로는 4대 봉사 원칙에 따라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까지의 기제[52]를 지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신위를 영원히 사당에 모시는 것이 허락된 인물에게는 不天位祭祀가 행해졌다. 불천위에 봉해지면 4대가 지나도 후손들이 분묘와는 별도로 사당에 신위를 모시고 기념할 수 있다.

50) 이순형, 2000 위의 책 pp.28~29 참조.
51) 김미영, 2006「조상 제사를 둘러싼 이론과 실제-안동지역 불천위제사의 제물과 진설을 중심으로」,『지방사와 지방문화』제9권 1호 (역사문화학회), p.319 참조.
52) 사자(死者)의 기일에 지내는 제사

예조는 국가나 지역사회에 큰 업적을 남긴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을 내렸는데, 이 특혜는 사후에도 주손 가문에 관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불천위 조상을 모신다는 것은 가문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며, 불천위를 모시고 있어야만 진정한 종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 종가와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해 불천위를 받은 종가는 '불천위종가'라고 별도로 부르면서 차별화를 두기도 했다. 불천위의 자격을 배향 받으려면 공적, 학문, 인격, 행적 등에 있어 결함이 없어야 한다. 불천위에 봉해진 사람들을 살펴보면 주로 나라를 구한 의병, 치리를 잘한 공신, 학문을 실천하여 백성들에게 모범이 된 사람,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도를 고안한 학자, 효행이 깊은 사람 등이다.

원래 불천위는 임금이 직접 예조에 명하여 주어지는 소수의 國遷不天位만 있었지만, 이후에는 향촌의 지역 유림들로부터의 추천을 받아 불천위의 자격을 얻는 儒林不天位가 생겨나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불천위가 유림의 공론에 의해 남설되면서 문중의 폐단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불천위제사로는 은혜리의 퇴계 이황 종가, 하회마을의 겸암 류운룡 종가와 서애 류성룡 종가, 봉화 닭실마을의 충재 권벌 종가, 의성의 학봉 김성일 종가 등이 있고, 안동지역에만 총 50位가 있다. 불천위종가는 동성마을과 더불어 씨족을 중심으로 한 종통의 계승과 전통을 상징하며 각 종가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고유한 의례문화이다. 제사의 절차와 형태는 시기와 지역, 가문의 방식에 따라 다양하다. 유교적 가문 의식이 강한 안동지역 불천위제사에서는 과시적 제물로 탕, 적, 떡을 올린다. 제사의 예는 기제사를 따르도록 하지만 각 가문의 특성과 취향, 경제적 상황, 시대의 변화를 고려하여 조금씩 변화해왔다. 최근에는 불천위 주제집단의 타지 이주로 인하여 제사의 유지가 힘들어지자 제일을 양력으로 바꾸는 등 의례 절차만을 고집하기보다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불천위제사는 종가의 실체를 제도적 장치로 이어주었다는 점에서 한국적 친족과 가족을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통 문화이다. 불천위제사는 내적으로는 문중 구성원들 간의 회합을 통한 결속의 효과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문중의 세를 과시하는 효과를 가진다. 예를 들면, 불천위제사에서 고령의 장로가 우대되는 연령의식은 혈연집단의 제도를 강화하고, 종가를 둘러싼 갖가지 조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효과도 있다. 문중의 후손들은 불천위제사를 통해 가문 의식과 정체성을 교육 받고 종가의 근원과 위상을 되돌아봄으로써 혈연 공동체의 동질감을 강화한다.

2. 진성이씨와 퇴계종택

李滉의 가문, 眞城 李氏는 진보에서 몸을 일으켜 안동으로 들어온다. 진성 이씨

의 시조는 李碩이다. 그는 眞寶縣(경상북도 청송지역의 옛 지명)에 지역적 기반을 두고 오래 살아왔던 가문의 출신이며, 향리직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다. 그런 그가 사마시에 합격함으로써 사족으로 뛰어오르는 것이 진성 이씨 역사의 시작이다. 이 가문의 안동 入鄕은 이석의 아들 李子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자수는 고려 충숙왕 시절에 벼슬길에 올랐던 사람으로, 고려 공민왕 때 홍건적을 격퇴한 공으로 安社功臣에 녹권되고 송안군에 봉해졌다. 그는 고려 우왕 때 진보에서 풍산현 마라촌(현 풍산읍 마애리)로 가문의 터전을 옮겼다가, 홍수로 집이 쓸려 나가는 바람에 다시 안동 주촌, 두루마을(현 와룡면 주하리)로 옮겨 기지를 잡아 이후 이자수의 증손 李繼陽이 크게 현달하여 벌족을 이루면서 진성 이씨는 도산면 일대를 중심으로 세거해 온 가문이 되었다.

진성이씨 예안시대를 연 중흥조인 이계양의 장자가 李堉으로, 그의 아들들이 李寅, 李河, 李寔, 李瀣, 이황이 된다. 진성이씨 중에서도 退溪의 후예가 가장 번성하여 문행과 과신이 이어져서 문과 출신자 32명을 배출하며 대를 이어 가학과 벼슬을 이어왔고, 한말 일제강점기에는 30여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하였다. 현재 안동의 진성이씨는 현재 풍산읍 마애리, 와룡면 주하리, 도산면 온계리·토계리·의촌리·원촌리 등에 살고 있다.[53]

안동시 도산면 퇴계종택은 퇴계 이황의 종택이다. 도산면 소재지인 온혜리에 못 미쳐 우측으로 난 포장도로를 따라 上溪에 이르면 오른쪽에 종택을 만날 수 있다. '退溪先生舊宅'이란 현판이 秋月寒水亭 앞 대문에 게판돼 있다.

처음 퇴계 종택은 퇴계의 손자인 東巖 李安道가 한서암 남쪽에 지었고, 1715년(숙종 41) 정자인 추월한수정을 건축하여 면모를 새롭게 하였다. 이후 10세손 古溪 李彙寧이 구택의 동남쪽 건너편에 새로 집을 지어 옮겨 살았다. 그러나 1907년 왜병의 방화로 두 곳 종택이 다 불타 버렸고, 현재의 퇴계 종택은 1926~1929년 13세손 霞汀 李忠鎬이 사림 및 종중의 협조로 옛 종택의 규모를 참작하여 지금의 터에 새로 지었다. 종택의 우측에 있는 추월한수정도 소실 뒤에 100여 문중의 부조를 받아 새로 지은 것이다. 비단 진성이씨 일문 뿐 아니라 유림이 상당한 역할을

53) 이 부분은 김복영, 2009「진성이씨」『디지털안동문화대전』을 주로 참고 하였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안동 유림의 학문적 종가로서의 이황의 위상이 1920년대까지 실제적으로 확보되어 있었다는 점을 뜻한다.[54]

종가는 동향을 하고 있고, 종가에 앉아서 볼 때 오른쪽으로는 사랑채와 안채, 왼쪽으로는 추월한수정, 그리고 그 사이로는 멀찌감치 물러나서 사당이 자리 잡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 34칸의 건물로, 5칸 솟을대문과 'ㅁ'자형 정침 영역, 그 동북쪽 약간 뒤로 같은 규모의 5칸 솟을대문과 추월한수정으로 이루어진 영역, 그리고 이 두 영역의 뒤쪽에 있는 사당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55]

현재의 이황 종택은 8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오래된 건물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대부가의 공간 영역을 구비한 가옥으로 솟을대문과 추월한수정 등 품위와 규모를 갖춘 대종가로써 이황의 숨결을 느끼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3. 의성김씨와 학봉종택

聞詔 金氏 또는 내앞 김씨로도 일컬어지는 의성 김씨는 신라 경순왕의 넷째 아들로 義城君에 봉해진 金錫을 시조로 하고, 고려 공민왕 12년 흥왕사 변란으로 金居斗가 풍산현으로 낙향하면서 안동에 정착했다. 이후 김거두의 현손 金萬謹이 14세기 말 임하면 천전리(내앞)에 정착한 후 지역의 대표적인 명문 사족으로 발전했다.

의성 김씨와 관련된 말 중에는 六父子登科地處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엔 전해지는 얘기가 있다. 김만근의 손자 淸溪 金璡에게 한 관상가가 "살아서 벼슬을 하면 참판에 이를 것이나 자손 기르기에 힘쓰면 죽어서 판서에 오를 것"이라고 예언하여 자신은 벼슬보다는 자손의 영예를 선택했다는 속설이 전해지는 것이다.[56] 그래서인지 그의 다섯 아들 모두 과거에 급제하며 의성김씨 집안은 五子登科宅이라 불리기도 했다.

이렇듯 내앞의 의성김씨는 대대로 학문과 과한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한일합방 이후에는 영남 최초의 근대 중등 교육 기관인 협동학교를 세워 청소년 교육을 통한 구국운동에 힘쓰면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57]

鶴峯宗宅은 조선시대 대유학자였던 鶴峯 金誠一이 살았던 집으로, 안동시 서후

54) 이 부분은 윤천근, 1999「안동지역 퇴계학파 IV.퇴계이황의종가」『안동문화』7(안동문화원)을 주로 참고 하였음

55) 정진영, 2009「퇴계종택」『디지털안동문화대전』

56) 이 부분은 하국근, 2008,「안동 내앞마을」『하국근의 風水기행』8(매일신문)을 주로 참고하였음.

57) 김복영. 2012,「의성김씨」『디지털안동문화대전』

면에 있다. 현재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학봉종택은 지대가 낮아 자주 침수된다 하여 학봉의 8대손 光燦이 1762년에 이곳에서 100m 떨어진 소계서당이 있는 자리에 옮겨 살고 종택이 있던 자리에는 소계서당을 지었다고 한다.[58]

학봉은 퇴계 이황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부제학, 경상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김성일은 류성룡과 더불어 퇴계 이황의 嫡傳高弟로서 성리학에 조예가 깊어 영남학파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임진왜란 때는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겸 순찰사로 진주성 대첩을 이끌었으나 향년 56세의 나이로 진주성에서 병사하였다. 사후에 文忠公 시호를 받아 의성 김씨 문충공파의 시조가 되었고, 이 건물이 종택이 되었다.[59]

1964년에 종택을 현 위치로 이건하였는데 이 때 안채만 옮기고 사랑채는 소계서당으로 쓰도록 하였고, 소계서당을 개조하여 종택의 사랑채로 꾸며 사용하였다. 비교적 평탄한 대지에 서남향으로 자리 잡은 이 종택은 근년에 지은 5칸 규모의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넓은 마당과 좌측에 정침과 그 뒤쪽에 사당이 있고, 마당 건너편에는 근년에 지은 운장각과 정자가 서북향으로 나란히 앉아있다.[60] 가옥은 一자형 안채와 사당, 문간채, 풍뢰헌, 운장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운장각은 유물의 보관과 전시를 위하여 세운 것으로 선생의 유품과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과 옛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61]

58) 이 부분은 박장영, 2004,「안동의 종가, 안동의 종택을 찾아서」26을 주로 참고 하였음
59) 이 부분은 김종길, 2001,「학봉종택」을 주로 참고하였음
60) 박장영, 2004 앞의 논문
61) 김시인, 1995,「의성김씨 학봉종택」(문화재청)

<참고문헌>

- 김택규, 1964,「동족부락의 생활구조연구」, 청구대학
- 홍현옥, 1986,「南陽洪氏 同族社會集團의 地域化 過程 : 華城郡 弘法里 同族村의 社會地理學的 硏究」, 성신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최기엽, 정혜정, 1990「동족촌의 지역화 과정과 공간구성 :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덕봉리 일원 사례연구」, 국토지리학회지 Vol.16 No.1, 국토지리학회
- 정승모, 1993,「동족촌락의 형성배경」, 정신문화연구 Vol.16 No.4, 한국학중앙연구원
- 임재해, 1994,『민속마을 하회여행』, 밀알
- 김시인, 1995,「의성김씨 학봉종택」, 문화재청
- 돌베개, 1997, 의성 김씨 종가와 내앞마을, 답사여행의 길잡이 10, 돌베개
- 서용수, 1999,『안동 하회마을』, 민음사
- 윤천근, 1999,「안동지역 퇴계학파 IV.퇴계이황의종가」, 안동문화 7, 안동문화원
- 이순형, 2000,『한국의 명문 종가』,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종길, 2001,「학봉종택」, www.hakbong.co.kr
- 문태현 외, 2003,「안동 하회마을의 문화관광 정책」, 안동학 연구,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 문화콘텐츠닷컴, 2004, 의성 김씨종택, 문화원형백과 한국의 풍수지리 한국콘텐츠진흥원
- 박장영, 2004, 안동의 종가 안동의 종택을 찾아서 26, www.andong.net
- 배영동, 2004,「종가의 사당을 통해본 조상관」, 韓國民俗學 39, 한국민속학회
- 김미영, 2006,「조상 제사를 둘러싼 이론과 실제-안동지역 불천위제사의 제물과 진설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9권 1호, 역사문화학회
- 하국근, 2008,「안동 내앞마을」, 하국근의 風水기행 8, 매일신문
- 김복영, 2009,「진성이씨」, 디지털안동문화대전
- 정진영, 2009,「퇴계종택」, 디지털안동문화대전
- 이창기, 2010「성리학의 도입과 한국가족제도의 변화」
- 김복영. 2012,「의성김씨」, 디지털안동문화대전
- 박재락, 2012,「안동지역 종택(宗宅)마을의 입지와 공간 고찰」, 동북아문화연구 30, 동북아시아문화학회

VIII. 인물로 살펴보는 국내독립운동

1조: 민예지, 김진희, 박자은, 우정민, 윤예나

0.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

안동의 독립운동을 말하고자 하는 많은 경우, 안동을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의 근거로는 갑오의병이 일어난 한국 독립운동의 발상지, 독립유공자를 가장 많이 배출, 전국적 대표성을 지닌 독립운동 지도자들을 배출한 고장, 일제 강점기에 가장 많은 순절지사를 배출한 고장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한국독립운동의 기점을 1894년으로 잡을 때, 그 서막은 의병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의병전쟁의 첫 기치인 '갑오의병'은 안동에서 일어났다. 당시 의병장인 서상철이 서울 태생임이란 점을 생각하면 동학농민전쟁 이후 일본수비대의 감시를 받고 있던 충청지역보다 산간지대를 이루며 교통이 불편한 안동지역을 적지로 택했던 것으로 추측한다.

전기의병은 다시 1894년의 '갑오의병'과 1895、6년의 '을미의병'으로 나눠지는데,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 등으로 촉발된 을미의병 때 안동지역에서는 1895년 11월 29일 의병봉기를 촉구하는 예안통문이 나돌기 시작하였다. 예안통문은 이만응(李晩鷹)、금봉술(琴鳳述)、이만윤(李晩允) 등 223명의 연명으로 작성되었다. 퇴계의 직계 후손인 이만응 (1829~1905)은 영남만인소로 널리 알려진 이만손(李晩孫)의 친동생이었다. 이후 호계서원에 도소가 차려지고 안동 유림대표들은 의병활동을 지속하였다. 안동의병의 결성은 '위정', '척사'를 주장해 온 안동 유림이 이를 지키기 위해 행동으로 나선 것이었는데, 유림들이 나섰다는 점에 착안하여 조선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해석되기도 한다. 안동을 중심으로 일어난 유생들의 의병활동은 아관파천한 고종의 의병 해산령을 분기점으로 잦아들었다.

이후 1904년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에서 비롯되는 중기의병과 후기에서는 안동의병들의 활동을 찾아보기 힘들다. 권세연이나 김도화 등 70대 의병장들이 은거에 들어갔고, 그 제자들인 유인식, 이상룡, 김동삼, 이인화 등은 계몽운동으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1. 류인식(柳寅植 1865-1928)

류인식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성래(聖來)이며 호는 동산(東山)이다. 그는 1865년(고종2) 안동 동후면(지금의 예안면) 주진리에서 류필영의 장남으로 태어났

으나 종숙인 류기영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생부인 류필영은 퇴계 학통을 계승한 류치명의 제자였으며, 3·1운동 직후 유림들의 항쟁인 파리장서의거에 참여했다가 투옥되기도 했던 인물이다.[62] 시조 습(濕)이 고려 말 완산백(完山伯)에 봉해졌고, 2대 류극서(柳克恕)는 보문각의 직제학지제교(直提學知製敎)를 지냈으며 15대 正源(三山)이 영조대 대사간을 지낸 것 등을 보았을 때 그의 가문은 서울에서 관료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다가 안동으로 이거한 뒤, 영남 사림으로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동산은 관직뿐만 아니라 학행 및 예학의 길을 걸어온 가문에서 자라나면서 30세에 이를 때까지 철저하게 도학자로 성장하게 되었다.[63]

동산은 김도화 (金道和)의 문하에서 전통적인 영남유학을 배우며 성장했다. 그는 28세 때인 1893년 과거를 보기 위해 상경했고 이 시험은 조선조의 마지막 과거였다. 이 과거에서 그는 제도의 문란과 조정의 부정부패를 직접 목격하고 귀향하여 학문에만 몰두하며 두문불출하였다. 다음해인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면서 자신과 나라의 장래에 대한 그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던 중 일제 구축을 표방한 의병항쟁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그의 독립운동의 출발이었다. 1894년 전기의병의 서장이 안동에서 열렸고 동산은 1895년 말에서 1896년 사이의 을미의병에 참가했다. 그는 討賊復讐(토적복수)의 의(義)를 외치며 격문을 돌려 의진을 편성하고 청량산 산성에 들어가 항쟁했다. 전기의병이 끝난 후, 10년간 산곡에 은둔하면서 동지들과 연락하고 국내 산수를 돌아보면서 형세를 살피는 등 구국의 길을 찾는데 몰두하다가 1903년 서울 성균관으로 유학길에 올랐다. 동산은 여기서 단재 신채호와의 만나 개화사상에 눈을 떴고 이는 퇴계의 학통을 이은 전통적인 영남유학을 배웠던 그가 개화사상을 주장하는 혁신유림으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64]

1904년 러일전쟁으로 국제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동산은 본격적으로 계몽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서울에서 신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안동에도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신교육기관 설립을 주도했으나 지방의 보수적 세력으로 인해 결국 좌절하고 말았다. 하지만 동산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1907년 근대식 중등학교인 협동학교(協東學校)를 설립하였다. 당시 대표적인 계몽운동의 비밀결사체인 신민회가 조직되어 신민회의 추천으로 많은 교사들이 파견되었고 역사, 국어, 대수, 화학 등 최고의 신학문이 교과내용으로 채택되었다.[65] 이외에 1908년 교남교육회, 1909년 대한협회 안동지회의 설립 역시 그의 노력의 결실이다.[66]

---

62) 디지털안동문화대전, '류인식', http://andong.grandculture.net
63) 김희곤, 1997, 「東山 柳寅植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7』(한국근현대사학회), p.47
64) 김희곤, 1997, 앞의 논문, p.48-49
65) 김희곤, 1997, 앞의 논문, p.49-50
66) 박걸순, 2012, 「일제강점기 안동인의 역사저술과 역사인식」, 『국학연구 20』(한국국학진

1910년 나라를 잃자, 그는 류동태에게 협동학교를 위임하고 이상룡, 김동삼 등과 함께 만주로 망명해 국외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자했다. 우선 그는 경학사 조직에 참여, 교육부장으로서 독립운동 기지 건설 및 이주 한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거듭된 흉작으로 경학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동산은 1912년 7월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 잠시 귀국하였다가 일제에 체포되었다. 석방 후 그는 망명을 포기하고 국내에서 활동을 재개하였다.

1910년대 동산의 국내 활동은 교육운동과 역사서 서술의 두 흐름으로 나뉜다. 우선 교육운동 측면에서 그는 1917년 다시 협동학교를 맡으면서 망명으로 못다 한 그의 교육 이념을 실천에 옮겼다. 또한 귀국 후 『대동사(大東史)』라는 역사서를 저술했다. 『대동사』는 단군에서 경술국치까지 우리나라 4243년간의 역사를 편년체 형식으로 서술한 통사로 교육이 철저히 억압당하고 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귀중한 작업이었으며, 그 자체가 적극적인 항일운동으로 평가된다.[67]

동산의 교육운동은 1920년에도 이상재·류진태 등과 함께 전국 교육기관을 통일하여 조선교육회를 창립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1923년 3월에는 조선민립대학기성회(朝鮮民立大學期成會) 발기총회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선전부장으로서 경상도를 순회하며 강연을 통해 지방의 청년·지식인들을 고무시켰다. 또한 1920년대 들어와서는 사회운동에 관심을 가져 박중화와 함께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 설립에 참가하였다. 또한 신간회가 탄생하자 8월에 안동지회를 결성하고 회장으로 활동하며, 안동 지역의 사회운동을 이끌었다.[68]

동산 류인식은 개화사상으로 전회하여 부친으로부터 의절당하고 스승으로부터 파문당하면서까지 안동에서 가장 먼저 계몽운동에 나섰던 혁신적인 유림이었으며 전기의병인 을미의병 참여를 시작으로 사거하기 1년 전인, 1927년 신간회 안동지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될 때까지 30여년을 오로지 국권회복으로 민족의 독립을 모색하는데 전념했다. 그의 활동은 안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중앙과 국외에도 영향을 미쳤다.[69] 계몽운동가, 역사서술가, 사회운동가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항일운동을 펼치던 동산은 1928년 4월 29일 생을 마감하였다.

2. 권오설(權五卨 1897-1930)

1)권오설의 생애

권오설은 풍서면 가곡리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안동이다. 어렸을 때부터 각종

흥원), p.280

67) 디지털안동문화대전, '류인식', http://andong.grandculture.net

68) 김희곤, 1997, 위의 논문, p.58

69) 박걸순, 2012, 앞의 논문, pp.279-280

사회운동에 앞장섰던 그는 무려 34년을 사회운동과 계몽활동에 몸담았고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그는 1919년 고향에 돌아온 이후 11월경에 원흥 학술 강습소를 조직하여 교장 겸 교사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그는 마을에서 사람들 참여를 독려하여 농민조합과 청년회를 조직하고 8월에 안동청년회에 가입, 집행위원이 되었다. 9월 23일에는 조선노동공제회 안동지회에 입회하였고 22년에는 풍산 학술 강습회의 설립 교사로 활동, 23년 11월에는 풍산소작인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을 하였다.[70]

이렇게 쭉 나열한 그의 경력만 봐도 그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 의식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농민 운동, 사회 운동에 참여했는지 알 수 있다. 물론 안동지역이 경북 지역에서 가장 국가 유공자 수가 많은 대표적인 독립 운동 지역이지만 권오설은 안동 독립 운동가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참여의식으로 역사적 행보를 이어 나갔다.

그는 1924년 서울로 와서 화요회에 가입하였다. 화요회는 김재봉이 만든 단체로 사회주의적 색채를 보이는 단체이다. 그 해 4월 하순에는 조선노농총동맹 임시대회 사건으로 인해 간부 26명과 함께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방면되었고, 그 후 같은 해에 인쇄직공조합을 조직하였다. 후에 인쇄공파업과 양말직공파업, 고무직공파업, 양화직공파업을 주도하였다.[71] 대체로 대동인쇄주식회사 문선공들의 동맹파업은 그 당시에 신흥청년동맹이 지도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권오설이 신흥 세력의 대표자로서 활동 행보를 보인 것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1925년 1월 3일에는 재경사회운동자간친회 발기에 참여했고 1월 8일 안동에서 화성회 창립에 참여했다. 화성회는 안동 지역의 사회주의 단체로 화요회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화성회에서는 어린 청년들의 의식 고양을 위해 강연을 통한 교육을 많이 하였다. 권오설은 여기 단체에서 청년들을 위한 강사로 나섰으며, 그 외에도 많은 안동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청년들의 의식 고양을 위해 힘썼다.

권오설은 6·10만세운동에서 시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운동의 발단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이전의 3·1운동을 염두하며 일으킨 운동으로 국내외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단체들이 이 운동의 기반을 만들어주었다. 국외에서는 조선공산당 임시상해부, 상해의 임시정부, 병인의용대가 만세운동에 도움을 주었으며 국내에서는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통동계가 만세운동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권오설은 이 시위의 좌파책임자 및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였다.[72]

1차 조선공산당이 무너졌기에 2차 조선공산당은 그렇게 신뢰 있는 기반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공산당은 당 차원에서 운동을 벌이다가는 망조의 위기에

70) 부분은 김희곤, 2001,『안동 독립운동가 700인』,(안동시) 90~91쪽 참조.
71) 이 부분은 김희곤, 2001,『안동 독립운동가 700인』,(안동시) 91쪽을 주로 참고하였음.
72) 김희곤, 2001,『안동 독립운동가 700인』,(안동시) 62~63쪽.

직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권오설로 하여금 고려공산청년회 차원에서 일을 진행하는 노선을 취하게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권오설은 시위계획수립과 발단의 역할을 했다. 즉 천도교 구파와 권오설파라는 양측 세력을 중립적으로 잘 조정하여 만세운동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결국 좌우합작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권오설은 미리 조선학생 과학연구회가 순종의 죽음과 국장소식을 전해 듣고 시위준비에 들어가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조선학생 과학연구회는 권오설의 영향력 아래 있던 단체로 대표적인 사회주의 사상 단체였으며 주로 학생, 청년들이 이 단체에 속해 있었다. 그런데 권오설이 학생들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파에 속한 학생들 또한 권오설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1926년 5월 3일에는 고려공산청년회 간부회에서 6·10 만세 운동 추진 총책임을 맡았다. 하지만 사건의 전모가 발각되어서 결국 검거되어 공판 결과로 7년형을 언도받았고, 결국 복역 중인 1930년 4월 17일에 옥사하였다. 현재 그의 묘는 가곡 공동묘지에 있다.[73]

3. 김남수(金南洙 1899-1945)

안동 출신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중 한 사람인 김남수는 1899년 2월 22일 광산 김씨 집성촌인 안동시 예안면 오천동에서 태어났다. 다른 안동 지역 사회주의 운동가들과 마찬가지로, 김남수 역시 양반 출신이었다. 김남수는 청소년기를 가학 (家學)으로 한문을 배우며 보낸 것으로 짐작되는데, 3.1운동이 일어날 무렵에는 서울에서 중동학교에 다니며 신식 교육을 받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가 서울에서 귀향하여 3.1운동에 참가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74]

1920년 동아일보가 창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남수는 안동지국을 맡아, 총무와 기자로 활동하였다. 한편으로 1920년 4월 서울에서 조선노동공제회가 결성된 것에 영향을 받아 안동에도 안동지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김남수는 안동지회 창립 무렵부터 이에 동참하면서 노동운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회 운동에 뛰어들기 시작하였다. 1922년 조선노동공제회로부터 사회주의 성향을 띠는 인물들이 분리해 나와 조선노동연맹을 조직하는데, 김남수는 이 무렵 선배 활동가들을 따라 서울로 상경했고 사회주의를 수용하였다. 1923년에는 조선노동연맹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이후 1924년 조선노농총동맹이 결성되는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하였다.

1924년 말이 되자 김남수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안동의 풍산소작인회 활동을

73) 부분은 김희곤, 2001,『안동 독립운동가 700인』,(안동시) 92쪽.

74) 김희곤, 2002, 「金南洙(1899~1945)와 안동지역 사회주의 운동」,『한국근현대사연구』 21, 한국근현대사학회 p.162-163

지도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11월, 서울에서 김재봉이 조선공산당 창당을 위한 바로 앞 단계 작업으로 화요회를 조직하자 안동에서는 그 두 달 뒤인 1925년 1월 안동의 화요회라 할 수 있는 화성회가 결성된다. 이후 안동지역 사회주의 운동의 핵심 조직이 되는 화성회에서 김남수는 상무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25년 10월, 도산서원에서 소작인들이 제때 소작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원의 유사들에게 태형을 맞는 일로부터 시작된 도산서원 철폐운동에서 김남수는 투쟁의 선봉에 섰다.[75] 그런데 이 때 도산서원의 원장은 김남수의 아버지였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부자관계조차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김남수의 결연한 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남수는 안동의 청년운동에 사회주의적 성격을 더해 안동청년연맹을 결성시켰고, 예천에서 형평사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조선일보』의 안동지국 특파기자 신분을 활용하여 사건의 내막을 전국으로 알렸다. 또 서울에 올라가 형평사 총본부에 출석, 사건을 보고하고 사회운동단체 대표들이 중앙 차원의 대응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했다. 이렇듯 김남수는 언론을 활용한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는데, 안동에 있는 6개 신문 지국의 대표자들을 모아 안동기지단을 창설하였다.

1925년 서울에서는 김재봉이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 조선공산당을 결성한다. 조선공산당은 이후 이어진 두 차례의 대규모 검거로 주요 활동가들이 투옥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어 거의 와해될 위기에 처하는데, 김남수는 1차 검거 이후 다시 서울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당을 재건하는 데 앞장섰다. 2차 검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김남수는 권오설 등의 옥바라지를 해 가면서, 사회사정조사연구사라는 연구기관을 겉으로 차려 놓고 탄탄한 활동 터전을 확보해 나가다가 마침내 제 3차 조선공산당 재건에 성공한다. 이 무렵 김남수는 신간회 경성지회에도 가담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76]

그러나 김남수는 1928년 2월부터 시작된 제 3차 검거를 끝내 피하지 못하고 6월 19일에 체포된다. 8월에는 제 4차 검거로 풍산소작인회와 안동청년동맹의 주요 인물이 검거되었다. 2년 뒤인 1930년에는 이른바 '경북공산당사건'이라 불리는 검거사태가 있었는데, 이 때 김남수에 의해 심긴 뿌리 조직들이 검거되어 버린다.

김남수는 골격이 컸고 건강도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장기 취조로 인해 그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어, 폐병에 '정신이상설'까지 나돌았다. 변호사가 보석을 신청해도 소용없었다. 병감에서 김남수는 가족의 면회도 거부한다.[77] 1930년 8월 2년형을 선고받은 김남수는 공소를 제기해 시간을 끌기보다는 형기를 채워 가능한 한

75) 김희곤, 앞의 책, p.174
76) 김희곤, 앞의 책, p.184-186 참조
77) 김남수, 「김남수가 김동수에게 보낸 봉함엽서(1929. 11. 27.)」, 『金南洙자료집』 p.169. 김희곤, 앞의 책에서 재인용.

빠르게 출옥하기를 택했다. 1931년 5월 출옥할 때가 되어서야 그는 가족들이 김남수의 건강 악화를 우려하여 반 년 간 숨겨 온 어머니의 부고를 듣는다. 이후 김남수의 행적은 명확하지 않은데, 1939년 사문서위조죄로 10개월간 투옥된 기간 중에는 부친상마저 당했다. 그는 오랫동안 후유증에 시달렸던 듯하다. 사망한 것은 양력으로 1945년 3월 12일로, 결국 그는 광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78]

4. 이육사(李陸史 1904-1944)

이육사는 1904년 4월 4일에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원천동 (당시 원촌동)에서 태어났다. 그의 본명은 이원록이다. 자는 태경이었고, 어릴 때 이름은 원삼이다. 이육사는 퇴계 이황의 14세손이다. 그의 6대조 사은 이구운은 문과에 급제하여 참판을 역임하였고, 고조부 이휘빈은 통덕랑을 지낸 인물이었다.[79] 이렇듯 글과 벼슬을 이어온 집안에서 태어난 육사는 그의 조부 치헌 이중직에게 소학을 배웠고, 이중직이 초대 숙장을 맡은 보문의숙과 도산공립보통을 졸업하며 신식교육을 접하였다.

1924년 4월에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9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돌아왔다. 귀국한 그는 대구 조양회관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가 1925년에 베이징으로 건너가 대학에 진학하였다. '베이징대학 사회학과에 입학하여 2년에 중퇴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80] 1932년에는 난징에 위치한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1기생 학원으로 입교하여 군사간부 교육을 받고 이듬해 4월에 졸업하였다.

이육사는 시·시조·한시·소설·수필·비평·번역에 걸친 다양한 갈래의 글을 남겼고 그가 글에서 다룬 주제는 나라 안팎의 사회, 정치, 경제, 예술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고 다채롭다.[81] 그의 처녀작으로는 1930년에 《조선일보》에 게재한 <말>이 있지만, 그의 문학 활동은 1934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기 그는 주로 수필과 평문을 발표하였다. 그의 작품으로는 <자연과학과 유물변증법>, <국제무역주의의 동향>, <다산문집> 등이 있다.

육사의 시 작품은 1935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는 1935년 12월에 <황혼>을 발표하였고, 1939년에는 《문장》지에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청포도를 발표하였다. 이후 1940년에는 <절정>, <광인의 태양> 등을 발표하였다.

문학 활동을 벌이던 육사가 독립운동에 발을 내디딘 때는 1925년 중반이거나 1926년 중반이다. 이 시기에 그는 중국을 드나들며 민족의식을 키웠다. 중국 유학

78) 김희곤, 앞의 책, p.189-190 참조
79) 김희곤, 2010, 푸른역사, 위의 책, p.54
80) 김희곤, 2010, 푸른역사, 위의 책, p.94
81) 디지털안동문화대전, '민족시인 이육사'

생활을 마치고 1927년에 귀국한 그는 '장진홍의거'에 연루되어 구속되었지만 1929년에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 옥고를 치루고 1년 뒤인 1930년에는 광주학생항일투쟁이 파급되자 대구청년동맹 간부로서 붙잡혔다가, 10일 만에 풀려났다. 1931년 1월에는 '대구격문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3월에 석방되었다.

이후 만주와 국내를 오가던 육사는 1932년에 조선혁명군사정치학교 1기생으로 학원에 입교하여 군사간부 교육을 받았다. 1934년 3월에는 군사간부학교 출신임이 드러나 경기도경찰부에 구속되었지만 기소유예로 6월에 석방되었다. 1943년에는 국내 무기 반입 계획을 세웠지만 7월에 모친과 맏형 소상에 참여하려고 귀국하였다가 늦가을에 일제에게 붙잡혀 베이징으로 압송되었다. 베이징감옥에 수감된 육사는 1944년 1월 16일에 그곳에서 순국하였다. 이후 육사의 유해는 국내로 옮겨져 미아리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가, 1960년에 그의 고향마을 뒷산으로 이장되었다.

<참고문헌>

- 김희곤, 1997,「東山 柳寅植의 생애와 독립운동」,『한국근현대사연구 7』(한국근현대사학회)
- 김도형 외, 1999,『근대 대구, 경북 49인』, 혜안
- 김희곤, 1999, 안동의 독립운동사, 안동시
- 김희곤, 2001, 안동 독립운동가 700인, (안동시)
- 서중석, 2001,『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 김희곤, 2002,「金南洙(1899~1945)와 안동지역 사회주의 운동」,『한국근현대사연구』21, 한국근현대사학회
- 금정태, 2004,「현대 한국유교와 전통 한국학 모노그래프2」,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희곤, 2006『조선공산당 초대 책임비서, 김재봉』, 경인문화사
- 김주현, 2009「金在鳳의 민족운동과 사회주의 인식」, 안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희곤, 2009,『만주벌 호랑이, 김동삼』, 지식산업사
- 김희곤, 2010, 푸른역사,『이육사 평전』,
- 장석흠, 2011, 안동지역, 우리 역사문화의 갈래를 찾아서 : 안동문화권, 역사공간
- 김윤규, 2012,「20세기 초 만주 망명 지식인 漢詩의 문학사적 성격」,『국어교육연구 제50집』
- 박걸순, 2012,「金在鳳의 민족운동과 사회주의 인식」,『국학연구 제 20집』, 한국국학진흥원
- 박걸순, 2012,「일제강점기 안동인의 역사저술과 역사인식」,『국학연구 20』, 한국국학진흥원
- 디지털안동문화대전 http://andong.grandculture.net

IX. 인물로 살펴보는 국외독립운동

1조: 송현규, 양홍비, 이재원, 진재권

1. 김동삼(金東三 1878-1937)

1) 한학자에서 독립운동가로서의 변모

김동삼 선생의 본명은 긍식이며, 호는 일송, 본관은 의성으로 1878년 경상북도 안동군 임하면 천전동에서 출생했다. 영남의 저명한 유학자 김흥락의 제자인 김주병에게서 한학을 익힌 그는 한학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었다.

대한제국 말 애국계몽운동가로 교육산업을 전개하였던 김동삼 선생은 일제강점기에는 만주에 망명하여 무장 항일운동을 주도하였다. 대규모의 독립전쟁을 일으켜 승리하는 것이 국권회복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했던 그는 항일 무장투쟁에 주력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0년 형을 선고 받았고 수감 중 옥사하였다.

한학자인 그가 애국계몽운동가로서 변신하게 된 것은 일찍이 의병을 일으켜 일제와 싸웠던 유인식의 영향 때문이다. 위정척사론자로 의병투쟁에 나섰던 유인식은 1903년 서울에 올라와 신학문을 접하고 러일전쟁을 목격함으로써 애국계몽운동가로 활동하였고 이후 안동으로 귀향했다. 김동삼 선생은 그의 모습에 감화를 받아 민족교육이 구국의 길이라 판단하고 1907년 의성 김씨 문중을 설득하여 협동학교라는 근대적 사립 민족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선생은 인근의 지도자를 규합하여 청년들에게 민족교육을 실시하여 첫해에 2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2) 무장항일투쟁에서의 김동삼

1910년 일제가 국권을 강탈하자 선생은 국외로 망명하여 무장 항일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심하고 1911년 문중의 일가 30여 명과 같이 신민회의 독립운동기지 건설 계획에 따라 서간도로 망명하였다.

이곳에서 신민회 지도자인 이회영, 이시영, 이동녕, 이상룡 등과 같이 경학사와 부민단을 조직하고 토지를 구입하여 재만 동포의 농지개척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독립운동 기지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김동삼 선생은 독립군 양성에 뜻을 두고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였으며, 1914년에는 백서농장을 경영하여 독립운동의 재원 조달의 근거를 마련하여 수많은 청년들을 독립군 사관으로 양성하였다.

김동삼 선생은 1919년 서일, 여준, 신팔균, 김좌진 등 39명의 민족지도자와 함께 무오 독립 선언에 참여하여 3·1운동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5월 이상룡과 같이 독립전쟁을 수행할 서로군정서를 조직하였으며 독립전쟁에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할 교민단체인 한족회를 설립하여 군정부의 참모부장, 한족회의 서무부장으로 활동하였다.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 1월부터 5월 15일 사이에 중국본토 상해에서 열렸고, 국민대표회의에서 의장으로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김동삼 선생은 모든 독립운동단체의 일원화와 임시정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후 김동삼 선생은 임시정부 개조를 주장하는 30여 개의 개조파 대표들과 성명을 발표한 다음 만주로 돌아와 3부의 통합을 꾀하고, 만주에서의 대일 무장투쟁에 힘쓰기 시작하였다.

3) 독립운동의 통합을 꿈꾸다

독립운동 단체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던 김동삼 선생은 두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에 임명되었으나 상해로 부임하지 않고 계속 만주에 남아있었다. 그는 국무위원이라는 명예보다 적과 인접해 있는 일선에서 무장독립운동단체를 통합하여 대규모의 독립전쟁을 일으켜 승리하는 것이 국권회복의 길이라 생각했다. 명예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독립투쟁 일선에서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것이 더 보람 있는 일이라는 그의 자세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 또한 그의 독립운동 활동에서 의미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그가 무장투쟁뿐 만 아니라 재만 한인 농민의 생활개선과 안정, 권익옹호에도 남달리 앞장섰다는 점이다.

이렇듯 만주에서 무장독립운동단체의 통합에 여생을 바쳤던 김동삼 선생은 1931년 만주사변 직후에 항일 공작을 추진하던 중 하얼빈 일본영사관 경찰에게 체포되고 만다. 신의주를 거쳐 서울로 이감된 그는 징역 10년 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37년 3월 3일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애국애족 업적을 기려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김동삼 선생에게 추서하였다.

2. 김대락(金大洛 1845-1914추정)

본관은 의성, 자는 중언, 호는 비서이다. 만주에 들어가 백두산 기슭에 산다는 뜻에서 백하(白下)라는 별호(別號)를 사용하기도 했다. 1845년 (헌종 11)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에서 우파(愚坡) 김진린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경상북도 안동 출신으로 안동에서 대한협회 안동지부를 조직하여 주권수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국권이 피탈되자 1911년 1월 가족들을 이끌고 중국의 간도지역으로 망명하였다. 매부인 이상룡과 더불어 이동녕, 이시영 등과 뜻을 모아 신흥강습소를 설치하였다.

이곳에서 군사훈련과 교포 자녀의 교육을 실시하면서 조국 독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항일운동의 실상을 기록한 서종록, 백하일기 등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그의 『백하일기』는 전문적인 역사서술은 아니지만 치열한 역사인식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82]

김대락은 1845년 안동에서 세가 좋았던 천전(川前: 내앞) 마을에서 태어나 퇴계 학맥을 계승한 정재 류치명의 문하에서 수학한 조부 김헌수, 숙부 김진기, 족숙 김흥락의 문하에서 성장하였다. 이들은 모두 안동의 대유학자였으며, 특히 김진기는 개항기 안동의 대표적인 위정척사 운동가였고, 서산 김흥락은 안동의 전기 의병을 지휘하였던 인물이다. 이렇게 김대락은 좋은 집안의 장자로서 집안의 대소사를 돌보며, 구학문으로 일가를 이루는 수구적 삶을 66년 동안 살아왔다.

그러나 그의 인생 여정 후반기는 변화의 시기였고, 지식인으로서 향당의 안정된 삶에만 안주할 수는 없었다. 변화의 바람은 가까이에서 불었다. 1907년 마을에 근대식 학교인 협동학교가 설립되었고, 상투를 자른 젊은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이들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며 신학문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83]

처음에는 이들을 강하게 비판하던 김대락은 1909년 초 노유(老儒)로서는 하기 힘든 일대 전환의 길을 선택하였다. 그는 협동학교의 신교육이야말로 '시조지의(時措之宜)' '시중지도(時中之道)'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곧 실천으로 연결되어 자신의 집을 협동학교 교실로 제공하고, 협동학교의 확장에 노력하였다. 그의 이러한 변화는 안동의 향중은 물론 영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김대락은 1910년 나라가 멸망하자 또 한 번 고된 길을 선택하였다. 일가를 이끌고 만주 망명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의 만주 망명은 자정적(自靖的) 성격이 강한 망명길이었다. 일본이 지배하는 조선, 즉 도(道)가 무너진 세상으로부터 멀리 떠나 자정의 삶을 지향하겠다는 의리론적 대응이었다. 김대락은 망명 후 다시 한 번 사상적 진화를 보여주었다.[84]

1911년에 작성한 신흥학교 「권유문」에서는 사상적으로 한층 진일보한 김대락의 인식을 읽을 수 있다. 서양의 문명과 새로운 조류에 대해 '사회진화론'에 입각하여 강자인 서양이 동양을 지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서양을 배우되 나라를 빼앗긴 특수한 상황에서 유가의 정신인 '사생취의(捨生取義)'의 도리정신으로 국혼은 지켜야 한다는 유가(儒家)로서의 본질적 취지는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었다.[85]

이러한 성격은 1913년 「공리회 취지서」에도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 김대락은 삼

82) 박걸순, 2012, 「金在鳳의 민족운동과 사회주의 인식」, 『국학연구 제 20집』, p.273-309
83)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84) 박걸순, 위 논문
85)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원포의 한인 단체였던 경학사가 무너지고, 갖가지 생활고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삼원포 사회에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공리회를 조직하였다. 그런데 김대락이 지향했던 자치단체는 '도와 덕'이 중심이 된 유교적 이상 사회이면서 '새로운 자유와 평등'의 시대관이 담긴 대동 사회였다. 이것이 바로 김대락이 꿈꾸었던 '만주 망명 한인 사회'의 모습이었다. 이처럼 김대락은 만주 망명 후 줄곧 청년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고, 이주 한인들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노력하다가, 1914년 12월 10일 삼원포 남산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고전을 학습하고 실천한 전통 지식인이면서 시대의 고통을 몸으로 받아들여 몸소 만주에 망명하여 독립투쟁에 뛰어든 실천적 지식인이었다.[86]

3. 이상룡(李相龍 1858-1932)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다가 만주로 망명해 서로군정서의 독판(督辦),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령을 지냈다. 본관은 고성(固城). 자는 만초(萬初), 호는 석주(石洲). 일명 계원(啓元)·상희(象羲).이다. 영남학파의 학통을 이은 김흥락을 사숙하고 경서·천문·지리·수학·역기·병서 등을 섭렵했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박경종과 함께 가야산에서 거의 하고 의병장 권세연, 이강년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일제의 근대적 군사력에 대항하는 의병항쟁에 회의를 느끼고 유인식, 김동삼 등과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1907년 협동학교를 설립했으며, 1909년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결성하여 회장을 지내면서 시국강연을 개최했으나 1910년 일제의 강점으로 해산당했다.

1909년 신민회 간부 비밀회의에서의 결정에 따라 독립운동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1910년 이시영, 이철영, 이석영, 이동녕, 이광, 김형식, 황만영, 이명세 등이 만주로 떠나자 그도 양기탁과 협의한 후 1911년 2월 서간도로 망명했다. 1911년 최초의 만주지역 항일자치단체로 개간과 영농에 종사하는 경학사(耕學社)를 조직하여 경학사장에 추대되고, 그 부속기관으로 신흥강습소를 설치했으며 민족해방운동 방략에 있어서 산업·교육 우선주의와 군사중심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12년 경학사를 발전시켜 퉁화현[通化縣] 합니하(哈泥河)에 교포들의 자치기관인 부민단(扶民團)을 조직하고 허혁에 이어 단장으로 추대되었으며, 신흥강습소도 이전하여 제2의 기지를 정했다. 부민단은 중앙부에 서무·법무·검무·학무·재무 등을 두었으며, 중앙·지방·구(區)·패(牌)의 4단계 조직을 통해 주민을 관할하여 퉁화현, 린장현[臨江縣], 류허현[柳河縣], 하이룽현[海龍縣] 등에 산재한 동포들을 결속하고 계몽했다

86) 김윤규, 2012, 「20세기 초 만주 망명 지식인 漢詩의 문학사적 성격」, 『국어교육연구 제50집』, p.429 - 458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서간도의 독립운동도 무장운동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 부민단도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대동단합의 자치단체로 류허현 삼원보(三源堡)에 한족회(韓族會)를 조직했고, 이를 바탕으로 임시군정부를 조직한 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서로군정서로 개칭, 최고책임자인 독판에 취임하여 독립군 양성에 주력하고 임시정부를 지지했다. 또한 신흥강습소를 신흥무관학교로 개칭하여 독립운동 간부를 양성했으나 일제의 소위 '불령선인(不逞鮮人) 토벌'로 1920년 지청천(池靑天)이 300명의 부대를 이끌고 안투 현[安圖縣]으로 가면서 이 학교는 해산되었다.

남·북 만주와 연해주에 산재한 항일단체와 독립군단의 통합을 시도하여 1921년 서로군정서와 의용군 일부를 정비, 관뎬 현[寬甸縣]에서 남만통일회를 개최하여 서간도 일대의 항일단체와 독립군단을 통합하여 대한통군부를 조직했다. 다시 대한독립군단 등 8단9회의 단체를 통합하여 대한통의부를 수립하고, 그 산하에 의용군을 조직했다. 1923년 자유시참변을 겪은 서로군정서를 어무현[額穆縣]에 이전하고 민병제를 실시하여 주경야병 (晝耕夜兵)의 훈련을 실시했다.

1924년 정의부가 발족되자 독판에 선출되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대통령 박은식의 죽음으로 후임에 추대되었다가 1925년 임시정부의 관제가 대통령제에서 국무령제로 바뀌면서 국무령에 취임했다. 당시 임시정부 의정원은 미국의 조선위임통치안을 주장하는 이승만을 탄핵하여 대통령에서 해임시키고, 임시대통령 박은식의 지휘 아래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무령 중심의 내각책임제로 개헌하는 동시에 무장운동 노선으로 전환하면서 만주 무장운동의 상징적 존재인 이상룡을 국무령에 추대한 것이다. 그러나 임시정부 내의 사상적 대립으로 다음해에 사임하고, 서간도에서 정의부·참의부·신민부의 3부 통합운동을 지도했다.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이 건설되던 1932년 5월 지린 성에서 병으로 죽었다.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87]

안동의 석주 이상룡은 유인식과 함께 애국계몽 운동을 벌였으며, 일본과 합병 후 해외독립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1911년 만주로 망명하여 항일민족독립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경학사' 를 설립하고 사장이 되었다. 또한 1919년에 군정부의 총재로서 신흥무관학교를 통해 독립운동의 간부를 양성하기도 하였다. 1925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령이 되었다. 또한 계몽운동가로서 존화양이변을 만들어 전통 도학의 중화주의 사상을 비판하는 자신의 진보적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석주 이상룡은 독립운동단체의 조직화를 위한 행동적인 인물이었다. 이는 일제시대에 유교인의 독립운동을 하던 독특한 모습이기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88]

---

87) 브리태니커백과사전, "이상룡" , http://www.newswave.kr/sub_read.html?uid=247173
88) 금정태, 2004,「현대 한국유교와 전통 한국학 모노그래프2」, 서울대학교 출판부

4. 김재봉(金在鳳 1891-1944)

김재봉은 안동의 대표적인 양반가문인 풍산김씨 출신으로 초기 사회주의 운동가이자 제1차 조선공산당 책임비서를 지낸 인물이다.[89] 1981년 5월 19일 안동의 명문 세거지인 풍산 오미마을 참봉댁에서 태어났으며 자는 周瑞, 호는 槿田이라 하였다. 김재봉의 부친은 오미마을에서도 토지가 많은 상층으로 그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기반은 김재봉이 경성에서 유학하고 중앙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90] 사립광명학교에서 소학교 과정을 마친 뒤, 김재봉은 서울로 올라가 사립중동학교를 다녔다.

이어서 그는 1912년 3월 20일 경성공업전습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전신)를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신학문을 수용하였다.[91] 경성공업전습소를 마친 김재봉은 곧 귀향하였다. 이후 그의 활동이 드러나는 것이 1917년 고향마을에 신교육 기관을 만든 일이다. 그가 김주섭과 더불어 만든 오릉학술강습회가 그것이다. 이들은 서울에서 배운 신교육을 마을 청소년들에게 전수시키려 노력했다.[92]

그가 독립운동에 발을 디딘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원활동에 참가한 1919년 가을이다. 그는 3.1운동 만세시위가 한창일 무렵 안동을 떠났고 같은 해 9월부터 만주일보 경성지사 기자로 활동을 시작했다. 1920년 김재봉은 노동운동에 발을 내디딘다. 1922년 1월 김재봉이 모스크바에서 극동민족대회에 참가하면서 자필로 작성한 조사표에는 그가 조선노동대회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노동대회는 국내 노농운동의 대표적인 단체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1920년 12월 말 '조선독립단사건'을 펼쳤다는 죄명 하에 일제 경찰에 검거되어 6개월형을 치르고 1921년 9월 출옥한다.

그는 출옥 후 1922년 1월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대회에 대표 중 일인으로 참가하게 된다. 회의 직후 김재봉은 치타에 도착해 한인학교에서 산술과 한문을 가르치고 사회주의를 익히는 데 힘썼다. 그는 이르쿠츠크파의 고려공산당 대회에 참가해 중앙위원으로 뽑히고, 1923년 5월 국내 사회주의 세력의 통합과 조선공산당 건설이라는 임무를 지고 귀국한다.[93] 그는 조선노동연맹회를 중심으로 조선공산당 조직 준비를 시작하고 꼬르뷰로 내지부 건설에 착수하였다. 또한 그는 대중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923년 7월 신사상연구회에 가입하였다. 이후 해외파와 연합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13인회와 견해가 갈려 내지부는 해산된다. 그는 이후 신

89) 김주현, 2009「金在鳳의 민족운동과 사회주의 인식」, 안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1
90) 김주현, 2009 위의 논문, P.2 참조.
91) 김주현, 2009 위의 논문, P.3
92) 김희곤, 2006『조선공산당 초대 책임비서, 김재봉』, 경인문화사, P.35
93) 김희곤, 2006 위의 책, PP.36~55 참조.

사상연구회를 해체하고 화요회를 조직해 사회주의 사상운동에 돌입한다. 1925년 4월 그는 조선공산당을 창당하고 초대 책임비서가 되어 민족해방과 형평운동에 힘썼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로 인해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6년 간 복역하였고 1944년 2월 세상을 떠났다.[94]

김재봉은 분명히 사회주의 노선을 취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추구한 최고 목표는 민족의 독립이었다.[95] 따라서 그는 국제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민족문제 해결을 가장 높은 목표로 삼은 민족적 사회주의자요 사회적 민족주의자였다.[96]

<참고문헌>

- 김희곤, 1997,「東山 柳寅植의 생애와 독립운동」,『한국근현대사연구 7』(한국근현대사학회)
- 김도형 외, 1999,『근대 대구, 경북 49인』, 혜안
- 김희곤, 1999, 안동의 독립운동사, 안동시
- 김희곤, 2001, 안동 독립운동가 700인, (안동시)
- 서중석, 2001,『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 김희곤, 2002,「金南洙(1899~1945)와 안동지역 사회주의 운동」,『한국근현대사연구』21, 한국근현대사학회
- 금정태, 2004,「현대 한국유교와 전통 한국학 모노그래프2」,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희곤, 2006『조선공산당 초대 책임비서, 김재봉』, 경인문화사
- 김주현, 2009「金在鳳의 민족운동과 사회주의 인식」, 안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희곤, 2009,『만주벌 호랑이, 김동삼』, 지식산업사
- 김희곤, 2010, 푸른역사,『이육사 평전』,
- 장석흠, 2011, 안동지역, 우리 역사문화의 갈래를 찾아서 : 안동문화권, 역사공간
- 김윤규, 2012,「20세기 초 만주 망명 지식인 漢詩의 문학사적 성격」,『국어교육연구 제50집』
- 박걸순, 2012,「金在鳳의 민족운동과 사회주의 인식」,『국학연구 제 20집』, 한국국학진흥원
- 박걸순, 2012,「일제강점기 안동인의 역사저술과 역사인식」,『국학연구 20』, 한국국학진흥원

94) 김주현, 2009 앞의 논문, P.15~25 참조.
95) 김희곤, 2006 앞의 책, P.49 참조.
96) 김희곤, 2006 앞의 책, P.92

편집후기

한 번 해보기도 어려운 답사지 편집인데, 세 번째나 답사지 편집에 참여하게 되다니!
개인적으로 놀라면서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들 정말 고생하셨구요. 재밌고 좋은 답사 되시길 바랍니다!

이영기(12)

두 학기 연속으로 답사를 인솔해주시는 김성보 교수님, 한창균 교수님, 최윤오 교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답사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모로 준비 많이 해주셨을 조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학기와는 다르게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텐데 기한에 맞추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하하
편집 초반에 많이 도와준 안수경, 이영은 학우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싶네요!
재미있는 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추억을 한아름 만들어봐요~~ 감사합니다^^

정승교(12)

1조

민예지 / 김진희 / 박자은 / 송현규 / 양홍비 / 우정민 / 윤예나 / 이재원 / 진재권

2조

고영욱 / 고혜진 / 박수빈 / 이미경 / 이용수 / 이은비 / 이지유 / 이현희 / 임다송

3조

이항섭 / 김기민 / 송선아 / 송지은 / 신정수 / 유계현 / 이영은 / 이필오 / 정수연 / 최연실

4조

서혜림 / 김경록 / 남서진 / 유도준 / 이소정 / 이예원 / 이유경 / 형채우 / 홍승조

학생회

정승교 / 한만휘 / 안수경

2014/09/25 ~ 2014/09/27